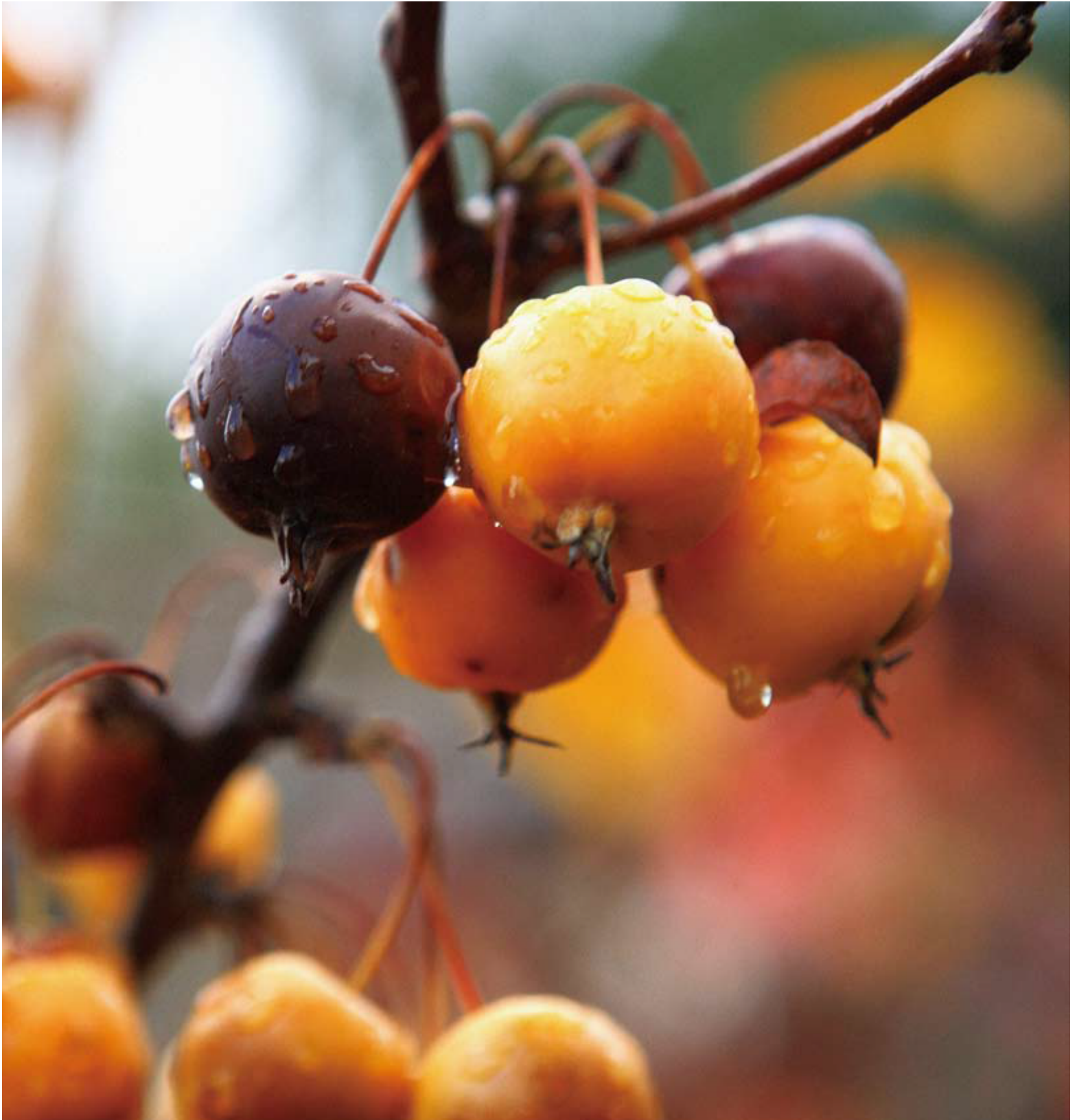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36 OCTOBER 2011





Cover Story

가을이면,
수확하기 전에
열매를 딸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Autumn asks us to consider
if we deserve Nature's present before giving.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36 OCTOBER 2011

발행인 이병훈
Publisher Bill Lee

발행처 남양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Namyang Company

편집 김민선
Editor Minsun Kim

디자인 디자인모루
Design by Design MORU

인쇄 정광인쇄(주)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ECO

- 04 CEO 비전레터 CEO Vison Letter
우리 업을 바로 세우자
Let's Quest and Share Our Values
- 08 자연오감 The Sense of Nature
가을에 부쳐
To Autumn
- 10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제작 - 유니베라의 환경경영
Products with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Materials;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vera
- 14 자연의 선물 The Gifts of Nature
리시니에, 고기능성 프리미엄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다!
L'initié Reborn as a High Performance Premium Brand!
- 16 에코넷의 농장 ECONET Farm
새로운 지평을 꿈꾸는 러시아 농장
Russia Farms Dreaming of New Future



NET

- 26 **현장스케치 ① On the Scene**
 에코네시안의 지혜의 전당 위즈덤플레이스 개관
 Opening of the Wisdomplace, a Hall of Wisdom of ECONETians
 위즈덤플레이스는 숙제다.
 Our Assignments for Wisdomplace
- 32 **현장스케치 ② On the Scene**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제막
 Unveiling Ceremony of Monument in Memory
 of the 12 Independence Activists
 역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에코넷에 감사하며
 Thanks ECONET for Valuing History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36 **현장스케치 ③ On the Scene**
 유니베라 UBA 창업 과정 제1기
 UBA Business Startup Course (The 1st Term)
- 40 **현장스케치 ④ On the Scene**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Design Your Life
- 44 **현장스케치 ⑤ On the Scene**
 자연 치유력, 힐탑 힐링 가든
 Construction of Healing Gardens at Hilltop Underway
- 46 **성공이야기 Success Life**
 자신의 운명을 찾아라
 Finding Your Destiny Brings Peace of Mind

WAY

- 48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 Lives of fellow ECONETians**
 기타영양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From Other Nutritional Food to Health Functional Food
- 50 **에코넷 북클럽 ECONET Book Club**
 영향력을 개발하라
 The 360° Leader
- 54 **에코넷 글마당 ① Literary Space**
 청풍명월(靑風明月)의 고장 진천 네이처텍의 천렵행사
 Naturetech's Summer Event
- 56 **에코넷 글마당 ② Literary Space**
 Above and Beyond Award Recognition Program
- 58 **에코넷 글마당 ③ Literary Space**
 휴가는 가족을 찾는 것
 A Visit to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 60 **에코넷 역사 ECONET Archives**
 남양알로에 대리점의 시작
 The first Distributor of Namyang Aloe
- 61 **에코넷 명소 사진전 My favorite place of ECONET**
- 62 **에코넷 뉴스 ECONET News**
- 74 **에코넷웨이 리뷰 ECONETWAY Review**
 퀴즈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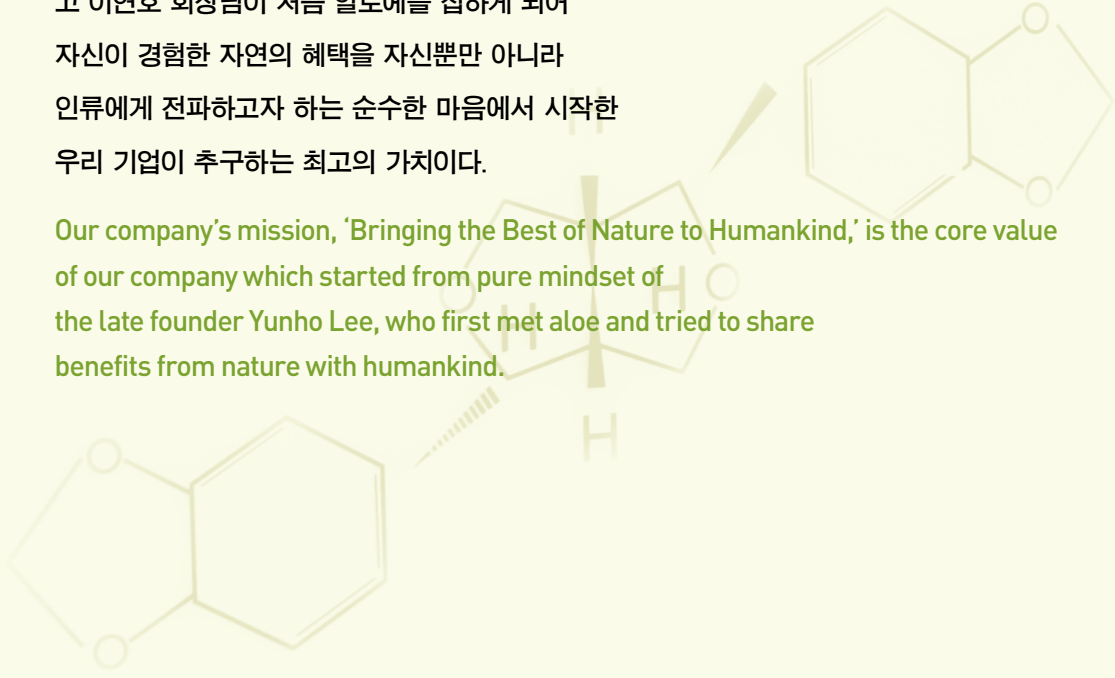
우리 업을 바로 세우자



Let's Quest and Share Our Values

우리 회사의 철학,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는 창업자이신
고 이연호 회장님이 처음 알로에를 접하게 되어
자신이 경험한 자연의 혜택을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Our company's mission,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is the core value
of our company which started from pure mindset of
the late founder Yunho Lee, who first met aloe and tried to share
benefits from nature with humankind.





소비자는 진화하고 있다. 기업의 고객은 단지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다. 고객은 단지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전 과정에 걸친 가치에 주의하는 소비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기업은 소비극대화와 삶의 질 극대화의 차이 속에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과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과소비는 과거엔 번영의 상징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치 않고 거시경제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여 미래에는 위기초래의 주범이 된다. 식품회사를 보아도 영양과잉시대에 트랜스 지방 사용, 과장된 식품광고, 패스트 푸드 등은 비만과 탄소배출 등 빈약한 가치를 양산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쓸모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거품이라 붕괴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위해는 최소화하고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철학,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는 창업자인 고 이연호 회장님이 처음 알로에를 접하게 되어 자신이 경험한 자연의 혜택을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 가치는 21세기에 적합한 가치이다. 또한 천연물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업화된 기존의 가치와 스토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D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또는 우리 회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CAP(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s)팀과 유니젠의 탄생이 이러한 가치의 원천이다. 우리 회사는 거대식품회사들처럼 단기적 매출 증가를 위한 공격적 대량판매가 아니라 가치창조를 통해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향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산업인 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등의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공정한 발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회적 가치의 소통 노력이자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건강한 인류를 위해 기존 메디칼 케어 시스템(Medical Care System)만으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헬스 케어 시스템(Health Care System)의 필요성이 선진국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반면에 사람의 건강에 대해 상업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허위과대광고 등이 난무하게 되었다. 이때 경쟁보단 유의미한 가치 차이를 창조하고 사회적으

The consumers are evolving. The customers of a company are the persons who not only purchase a product of the company but also are affected by activities of the company. These people are interested in function and price of a product, and are furthermore becoming to pay attention to values in the entire process from manufacturing to selling of a product. Now is the time for a company to agonize over issues between maximization of consumption and maximization of quality of life.

Excessive goods and overspending of service were the symbols of prosperity in the past, but they are not sustainable in the standpoint of the entire earth and they cause imbalance in terms of macro economy, possibly resulting in crisis in the future. A food company is an example of this; in this over-nutrition era, use of trans fat, exaggerated food advertisement, fast food and so on are creating negative values such as obesity and carbon emission, and these are useless for the entire society, and they are bubbles that will burst shortly. In the 21st century, new paradigm that can minimize harm and maximize values is deemed necessary.

Our company's mission,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is the core value of our company which started from pure mindset of the late founder Yunho Lee, who first met aloe and tried to share benefits from nature with humankind. This value is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o successfully run business with natural products requires not only using the existing values and stories but also creating new values through R&D and developing our own strength. Establishment of 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s) Team and Unigen are the root of these. We should pursu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value creation rather than aggressive mass sale for short-swing profits which large-scaled food companies pursue. Our company, also, has made efforts to solidify basis of health functional food and functional cosmetics businesses and stabilize fair development system so that has enhanced society-wide communication and assumed social responsibility.

Since 1980, it had been said that the existing medical care system was not enough for health of humankind, and thereby necessity of new health care system was discussed among developed countries. And, false and puffery



NATURE'S BEST

로 올바른 일을 하는 기업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규칙 만들기(Rule Making)의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과 소비자단체, 학계·관계·정계와 수많은 공청회 등 토론을 유도하여 마침내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약사법과 식품위생법과 구별되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 회사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창업주이신 고 이연호 회장님 때부터 지금의 총괄사장님까지 건강기능식품협회를 이끌면서 이루어온 일이다.

우리 회사를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WHO의 발표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며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이고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영향이 외로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에선 고령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구성 중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독신가구도 증가하여 사회적 연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적 연결, 배려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다. 방문판매처럼 인적인 네트워크가 주로 된 방식은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정신적 배려는 인적 접촉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우리 기업의 가치추구활동은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문화이다.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은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그 영역과 가치가 진화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냐가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체계를 위해 규칙 허물기(Rule Breaking)가 필요하다. 또 다른 새로운 규칙(Rule)을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의 구성원 모두는 이런 중차대한 가치창조와 실현을 위해 우선 회사를 사랑해야 한다. 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사랑, 회사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만이 그들을 위한 가치창조·실현의 근본이다.

글 | 조태형 COO(Chief Operating Officer) | 에코넷

advertisements, which confused market and fueled overheated competition, became rampant. Therefore, 'rule making' became necessary to create meaningful and differentiated value, and standardize the value of a company which has done right things for the society. Our company led a lot of discussions among companies, consumer organizations, academic circle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olitic organizations and played a crucial role to create Health Functional Food Act, which is separated from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Food Sanitation Act. It is what our company has done while leading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by the late founder Yunho Lee and present Chairman & CEO Bill Lee.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our company a workplace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According to WHO,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happiness of humankind is health and the largest factor to harm our health is stress, which is mostly influenced by loneliness. Under the ageing society of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aging popul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one-person household is also rising, which implies that population that can be isolated from the society is increasing.

In addition to goods and services for beautiful and healthy life, social connection and care are also important values. Therefore, the method of sale based on personal network such as door-to-door sales is suitable for sharing such values. It is not possible without personal contact to provide knowledge about health and mental care to the isolated, unhealthy, and weak people. This kind of value is differentiated and unique culture of our company. Scope and values of drugs, quasi-drugs, health functional food, and functional cosmetics are being expanded to enhance health and beauty of humankind. "Which is more valuable and required" is a question raised to humankind.

Now, we need the "rule breaking" to establish new order. In order to make new order, all the members of our company should love our company first to create and realize values of our company, as we can fulfill the values through our company. Love toward the beloved, family, company, country, and humankind is the very basic of value creation and realization.

By Taehyeong Jo COO(Chief Operating Officer) | ECONET



안개와 무르익는 여물음의 계절
익어 가는 햇님의 정다운 벗님으로서
햇님과 함께 은근스러이 초가지붕 및 덩굴에
열매를 달아 주고 축복을 말하는 그대.
이끼 낀 나뭇가지 능금으로 휘이며
열매마다 속속들이 익음을 채우고
조롱박을 부풀리며 꿀개임 여물게 하고
꿀벌을 위하여 철 늦은 꽃 명울지게 하여
따스한 철 언제까지나 끝날 날 없을 듯.
벌들 잉잉댄다.
여름이 벌집에 넘쳤기에.

J. 키츠의 '가을에 부쳐' 김우창 역 『가을에 부쳐』에서 발췌

Season of mists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ves run;
To bend with apples the moss'd cottage-trees,
And fill all fruit with ripeness to the core;
To swell the gourd, and plump the hazel shells
With a sweet kernel; to set budding more,
And still more, later flowers for the bees,
Until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For Summer has o'er-brimm'd their clammy cells.

Excerpted from "To Autumn", written by John Keats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제작 유니베라의 환경경영

Products with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Materials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vera





편집자 주 환경경영은 에코넷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화두의 하나입니다.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환경경영 칼럼을 연재합니다.

1. 에코넷, 환경경영의 길을 걷다 (vol.33)
2. ISO14001 인증 - 2011년 네이처텍의 환경경영 목표 (vol.34)
3. 친환경 약초원 조성 - 유니젠의 환경경영 (vol.35)
4.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제작 - 유니베라의 환경경영(vol.36)

요즘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꽤나 회자되고,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제작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커 부분적으로만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유니베라도 제품제작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조금씩 줄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제품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고, 환경 유해 원료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지난 상반기에 출시된 <힐탑가든>이다. 힐탑가든은 약 95% 이상 친환경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힐탑가든은 개발 컨셉트도 그렇지만 원료 자체부터 제품 제작의 프로세스까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힐탑가든의 단상자 및 지선대는 코팅을 하지 않은 무염색 펄프지로 만들었으며, 인쇄도 공에서 추출한 친환경 잉크 원료(Soy Ink)로 인쇄했다. 그리고 단상자에 브랜드 이름이나 기타 설명을 인

Editor's no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is one of the major objectives that ECONET has begun to implement as a part of corporate strategy. To boost the interests regarding environment management within ECONET, the "ECONETWAY" is including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ries.

1. The roa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vol.33)
2. ISO14001 certification - 2011 goal of Naturetech for environment management (vol.34)
3. Environmentally friendly herbal garde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gen (vol.35)
4. Products with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Materials
-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vera (vol.36)

The word 'environment-friendly' is one of the keywords many people mention about, and many companies have made and sold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However, these kinds of products require a lot of cost in the stage of manufacturing, and thereby most of companies use only environment-friendly ingredients in part. In this regard, Univera is also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in a gradual manner by reducing factors negatively influencing over environment. As an effort for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Univera has changed packaging materials to environment-friendly ones and tried to minimize ingredients that may harm environment.

The representative product to prove Univera's efforts for environment is Hilltop Gardens, a product released in the 1st half of this year. Hilltop Gardens is the environment-friendly product whose ingredients - approx. 95%- are environment-friendly; the concept as well as entire process from composing of raw materials to manufacturing of this product is environment-friendly.

유니베라도 제품제작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조금씩 줄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제품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고,
환경 유해 원료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Univera is also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in a gradual manner by
reducing factors negatively influencing over environment.
As an effort for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Univera has changed packaging materials to environment-friendly ones and tried to
minimize ingredients that may harm environment.

쇄할 때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여 1도 단색인쇄를 하였는데, 이것도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힐탑 가든의 4개 제품(토너, 에멀전, 에센스, 크림)의 단상자는 상자 배면(상자 안쪽 부분)에 제품 상세 설명을 인쇄하여 설명서를 따로 제작하지 않아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였다. 상자 배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상자 겉면에 절취선을 만들어 뜯어보기 쉽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매우 편리한 상태가 되었고 부피가 큰 상자를 분리 수거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힐탑가든의 용기 또한 최대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플라스틱은 보통 다시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재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힐탑가든 제품 용기 뚜껑은 플라스틱 계열이긴 하지만 친환경 소재로 구분되는 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와 PE(Polyester-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였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유리병은 소재 자체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유리병 겉을 비닐 코팅

First of all, paper used for packaging of Hilltop Gardens is made up of non-dyed pulp, and printing also uses the environment-friendly material, a soy ink extracted from soy. Also, brand name and descriptions on the package box use a single tone printing in order to minimize factors causing negative influence over environment. In addition, four products of Hilltop Gardens – toner, emulsion, essence, and cream- do not have a separate description, rather descriptions are written on the back of a package box, in an effort to reduce use of paper. This package box has perforated lines outside,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open this box. These features of a package box enable customers to conveniently throw away a box for garbage recycling.

Containers of products of Hilltop Gardens also are made up of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Plastic can be melted for recycling, but this melting process causes a lot of harmful materials and costs a lot, and thereby plastic is not frequently recycled. Therefore, cap of products of Hilltop Gardens uses PP (Polypropylene) and PE(Polyester), kind of plastic but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to reduce environmental cost. Glass bottle containing



이 아닌 에칭 기법(다른 환경 유해 가공을 하지 않고 유리 표면을 뿌옇게 부식시켜 불투명하게 만드는 친환경 기법)을 사용하여 병 자체에 특별히 가공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힐탑가든의 파우치는 다른 제품의 파우치와는 달리 면 소재로 제작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재에서도 유니베라의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추석을 겨냥한 추석 건강기능식품 기획세트는 단상자 및 지선대에 수성 코팅을 적용하고 접착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내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포장재를 친환경소재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니베라는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사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임직원 개개인마다 조금씩 환경경영에 일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니베라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경영을 조금씩 더 발전시킬 것이다.

글 | 민지희 대리 | 전략인사팀 | 유니베라 한국

contents can be recycled as well. Surface of this glass bottle uses etching technology, which is an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to make surface of glass opaque, not vinyl coating. Moreover, a pouch of Hilltop Gardens is made up of cotton different from other pouches, and therefore it can be recycled. Univera's willingnes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be witnessed with packaging materials of health functional food. A gift set of Health functional food for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uses water coating for packaging materials and minimizes use of adhesive. Next year,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will be used for entire packaging.

Univera will keep promo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company is developing a bond of sympathy to recognize the issu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make efforts to continue environmental management. Univera will not be satisfied with the present, rather, we will develop our environmental management further to protect and save the earth.

By Jihee Min Assistant Manager | Strategy HR Team | Univera Korea

리니시에,
고기능성 프리미엄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L'initié Reborn
as a High Performance
Premium Brand!

W389



[표] 제품 사용 4주 후 경험할 수 있는 W389의 화이트닝 효과 [Table] Whitening Effect of W389 after 4-Week Use

<p>제품 사용 4주 만에 피부톤이 화사하게 빛나는 광채 효과를 체험하다. After 4-week application, I could witness that my skin tone became brighter and added glow.</p> <p>95%</p>	<p>제품 사용 4주 만에 울긋불긋한 피부가 개선되어 피부가 맑아졌다. After 4-week application, my uneven skin was improved and skin tone became transparent.</p> <p>95%</p>	<p>제품 사용 4주 만에 기미, 잡티 부위가 없어졌다. After 4-week application, my freckles and blemishes were reduced.</p> <p>83%</p>	<p>제품 사용 4주 만에 피부 밝기가 개선되었다. After 4-week application, my skin restored brightness.</p> <p>67%</p>
---	---	---	---

2011년 10월, 리니시에가 더욱 강한,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2006년 처음 선보였던 리니시에가 5년 만에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 바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아름다운 모습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리니시에를 업그레이드하였다. 리니시에가 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란 인위적으로 억지로 꾸며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건강하여 그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뿜어 나오는 아름다움이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1) 에이징으로 인해 변화되는 피부에 대한 연구, 2)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용 식물을 활용한 포뮬러 개발, 3) 피부에 유해한 원료는 철저히 배제한 노노(No-No) 리스트 적용, 4) 임상 테스트와 외부 소비자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효능·효과 검증 등, 연구에서 개발, 검증까지 리니시에에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혁신적인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시작으로 고기능성 화이트닝 라인인 리니시에 W389 크리스탈 화이트의 에센스, 크림, 효소-필링제 세 품목이 2011년 10월에 출시된다. 리니시에 W389 라인에는 유니젠이 10년 동안 8천여 번의 실험 끝에 개발한 ‘유니-화이트’ 성분이 들어 있다. 피부과 처방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성분과 비교 화이트닝 효과가 20배나 더 강한 ‘유니-화이트’ 성분은 에코넷의 가장 독보적인 성분들 중 하나로서 이미 세계 유명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되고 있다.

리니시에 W389 완제품은 외부 임상기관을 통해 미백 기능성의 효능·효과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고, 추가로 외부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4주간 자가 평가 결과를 거쳐 기능성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기미와 지저분한 잡티, 칙칙한 피부색, 불균일한 피부결, 맑고 투명하지 않은 피부 빛 등은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이면 누구나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고민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로 가장 많이 한 답변이 바로 ‘칙칙해 보이는 피부’라고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계절과 상관 없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피부라 하겠다. 단 4주만 써봐도 바로 투명해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리니시에 고기능성 미백 라인 W389 크리스탈 화이트 제품이 그 이상적인 피부를 실현시킨다.

에코네시안들도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첫날 효소 필링제로 세안하고 에센스와 크림을 바르고 잠을 자면 다음날 바로 매끄럽고 환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수 있다. 4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히 투명하고 맑아진 피부를 느낄 수 있다. 올 가을 리니시에 W389와 함께 크리스탈 피부를 경험해 보자.

글 | 이주연 차장 | 화장품 PM팀 | 유니베라 한국

In October 2011, L'initié will be reborn as a stronger and more refined brand. It means that L'initié, launched in 2006, is about to be upgraded in five years after its launch. L'initié is upgraded based on “all the people's wish to stay beautiful even though they are getting older.” To L'initié, beauty comes from healthy and natural skin, not from artificially-made skin.

In order to realize healthy beauty, L'initié went through the processes below and was reborn as an innovative product; 1) Study on skin aging, 2) Development of a formula using medicinal plants as a solution for skin aging, 3) Application of No-No list to exclude ingredients harmful to skin, 4) Verification of objective effect and efficacy based on clinical test and consumer survey.

As L'initié's first step, high performance whitening line, composed of three products such as L'initié W389 Crystal White Essence, Cream, and Enzyme peeling powder, will be launched in October 2011. L'initié W389 line contains 'UniWhite' ingredient which has been developed after some 8,000 experiments by Unigen over 10 years. The 'Uni-white' ingredient, which shows 20 times higher whitening effect than hydroquinone that is available with prescription from a dermatologist, is one of the unrivaled ingredients of ECONET and is being supplied to well-known global companies.

L'initié W389 finished products secured objective data on effect and efficacy of whitening function through an external clinical institute, and their functionality was re-tested through 4-week assessment by external consumer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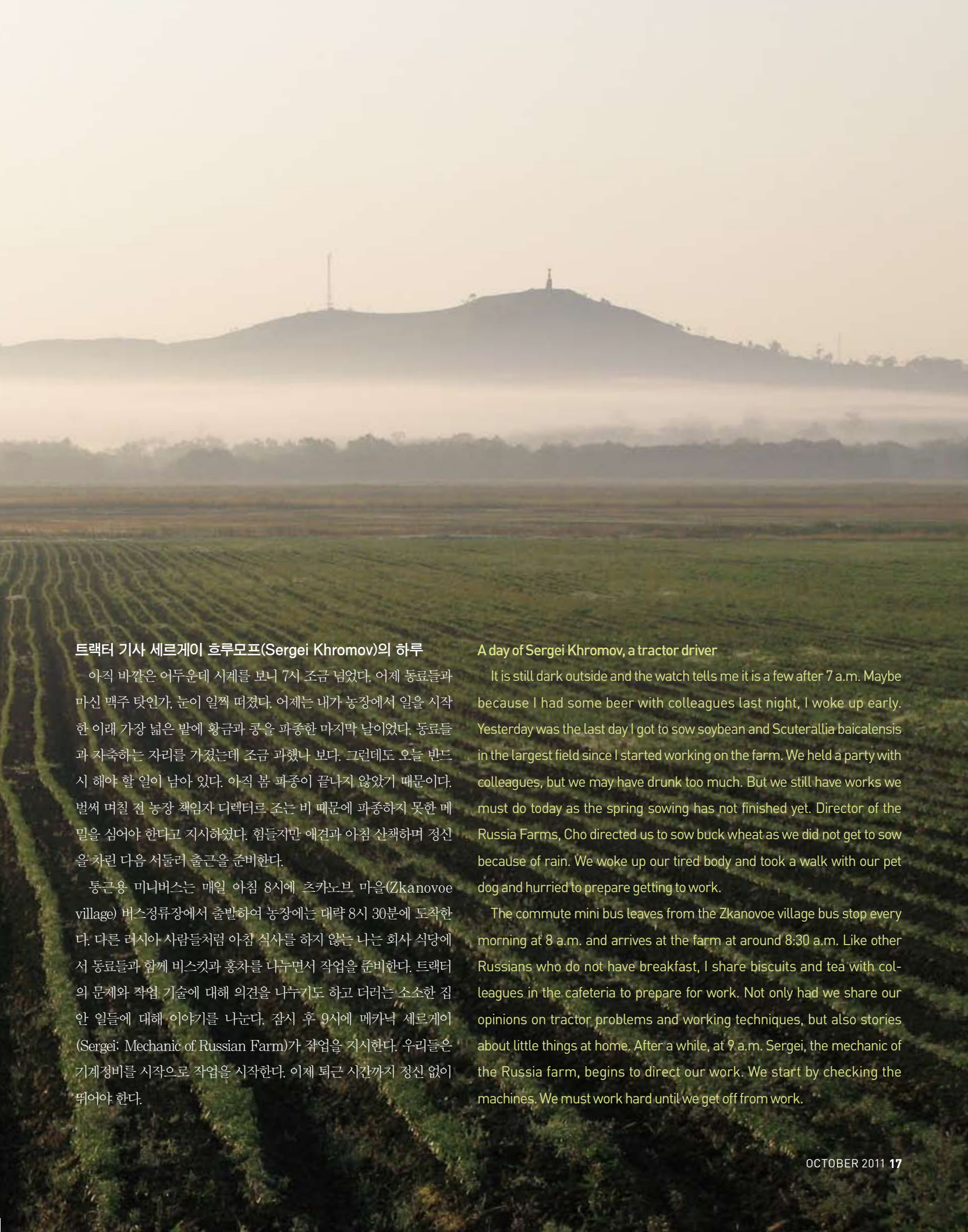
Anyone who reached age of skin-aging may have skin problems such as freckles, blemishes, dark skin, uneven skin texture, and dull skin, etc. According to recent survey, the most women answered that it is 'dull skin' that make women look older. Transparent and clean skin is the most ideal skin all the women want to have. Only 4-week application of L'initié high performance whitening line, W389 whitening products enable you to experience more transparent and ideal skin.

Do you want transparent and bright skin, ECONETians? Cleanse your face with the Enzyme peeling powder and apply essence and cream at night, and then you can experience silky and bright skin in the following morning. 4-week application will make your skin look different. Let's experience crystal skin this autumn with L'initié W389.

By Jooyoun Yi Deputy General Manager | Cosmetic PM Team | Univera Korea

새로운 지평을 꿈꾸는
러시아 농장

Russia Farms Dreaming
of New Future



트랙터 기사 세르게이 흐루모프(Sergei Khromov)의 하루

아직 바깥은 어두운데 시계를 보니 7시 조금 넘었다. 어제 동료들과 마신 맥주 탓인가, 눈이 일찍 떠졌다. 어제는 내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 가장 넓은 밭에 황금과 콩을 파종한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들과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조금 과했나 보다. 그런데도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아직 봄 파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며칠 전 농장 책임자 디렉터르 조는 비 때문에 파종하지 못한 메밀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힘들지만 애견과 아침 산책하며 정신을 차린 다음 서둘러 출근을 준비한다.

통근용 미니버스는 매일 아침 8시에 즈카노브 마을(Zkanovoe village)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농장에는 대략 8시 30분에 도착한다. 다른 러시아 사람들처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나는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비스킷과 홍차를 나누면서 작업을 준비한다. 트랙터의 문제와 작업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더러는 소소한 집안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잠시 후 9시에 메카닉 세르게이(Sergei: Mechanic of Russian Farm)가 작업을 지시한다. 우리들은 기계정비를 시작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이제 퇴근 시간까지 정신 없이 뛰어야 한다.

A day of Sergei Khromov, a tractor driver

It is still dark outside and the watch tells me it is a few after 7 a.m. Maybe because I had some beer with colleagues last night, I woke up early. Yesterday was the last day I got to sow soybean and *Scuterallia baicalensis* in the largest field since I started working on the farm. We held a party with colleagues, but we may have drunk too much. But we still have works we must do today as the spring sowing has not finished yet. Director of the Russia Farms, Cho directed us to sow buck wheat as we did not get to sow because of rain. We woke up our tired body and took a walk with our pet dog and hurried to prepare getting to work.

The commute mini bus leaves from the Zkanovoe village bus stop every morning at 8 a.m. and arrives at the farm at around 8:30 a.m. Like other Russians who do not have breakfast, I share biscuits and tea with colleagues in the cafeteria to prepare for work. Not only had we share our opinions on tractor problems and working techniques, but also stories about little things at home. After a while, at 9 a.m. Sergei, the mechanic of the Russia farm, begins to direct our work. We start by checking the machines. We must work hard until we get off from work.

내가 모는 트랙터는 130마력이 넘는 대형이다. 큰 힘이 필요한 경우이나 정지 등은 대부분 내 몫이다. 다행히 금년부터 시베리아 중앙에 있는 도시 옴스크(Omsk)에서 직접 부품을 구매하게 된 후로는 이전처럼 부품이 없어서 몇 달씩 트랙터를 세워 놓는 일은 없다. 오늘 아침에 할당된 작업은 메밀을 파종할 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다. 오전 작업 면적은 약 10ha. 이 정도라면 2시간쯤 걸릴 것이다. 러시아 트랙터에는 냉방장치가 없어서 실내가 제법 더운 편이다. 그러나 크라스키노(Kraskyno sub-county)는 여름에도 그다지 덥지 않아 작업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다만 쉬지 않고 달려드는 해충들이 조금 걱정이다.

오전 중에 서둘러 잡풀을 제거하고 파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니 12시 20분이다. 농장식당의 오후 1시 점심시간에 맞춰 츠카노브 농장(제1농장: Zkanovoe Farm)으로 돌아간다.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농장식당은 작년에 본궤도에 올랐는데, 홍보자료에도 사진이 실린 적이 있는 빅토리아(Victoria Fisenkha)가 여러 가지 요리를 점심으로 제공한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나와 동료들에게는 실속 있는 식사로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다.

오후 작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금년에 처음으로 유기재배를 시도하는 밭의 제조작업이다. 이 작업은 모두가 힘들어 하는 작업이다. 작업 면적이 넓은데다가 풀이 많아 제조작업을 세심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모든 일에 꼼꼼하고 정확한 내 행동을 보고 내게 작업이 할당된 것 같다. 그 후에는 까미쇼브 농장(제2농장: Kamishovoe Farm) 주변 제조작업을 해야 하는데, 까미쇼브 농장까

The tractor I drive is a large tractor with 130 horse power. Plowing demanding a lot of force is my quota of work. Fortunately, since machine parts are directly purchased from Omsk located in central Siberia this year, we no longer had to put a hold on our work waiting for parts to come. The quota of this morning's work is to remove weeds from the field where buck wheat will be sowed. The area of the field is about 10 hectares and this would take us about two hours to complete. Because the Russian tractors don't have an air conditioner, the indoor is rather hot. As it is not so hot in the Kraskino sub-county even in the summer, it won't be too difficult to work. Only, pests bothering us at all times are of concern.

It is 12:20 p.m. when we hurried in the morning to remove weeds and complete preparations for sowing. In time for lunch in the farm at 1 p.m., we returned to the Zkanovoe Farm. Lunch time is the most comfortable time of the day. The farm cafeteria began to operate in a stable manner from last year. Victoria Fisenkha, whose photo was once published in publicity materials, provides various Russian soups and macaroni or rice with meat for lunch. Although it is not a grand meal, the meal provides what colleagues and I need and it is one of the welfare benefits provided by the company.

Our afternoon work starts at 2 p.m. We need to weed out the field where organic farming will take place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is is a difficult work for all of us. Not only is the field large, but there are also many weeds to remove requiring meticulous work. I think this task was given to me for my meticulous work at all times. After this, we need to weed out the sec-



지는 오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둘지 않으면 일하는 시간보다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더 많다. 또 밭들이 작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밭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사방이 시원하게 트인 밭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러시아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유티콤(Ubikom)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이 절로 일어난다. 그럴 때는 슈콜라(Shukola: 11학년제)의 10학년(한국의 경우 고2)인 아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이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과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 있는 대학을 나와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간에 갈등이 생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3시간 남았지만 6시 퇴근 시간에 맞춰 츠카노브 농장으로 동료들과 돌아간다. 오늘 작업한 내용과 사용한 연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원 샤샤(Alexander Nam)에게 보고하고 트랙터 상태를 점검한 다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동료들과 주말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영농책임자 빅토르(Victor Nam: Farm labor supervisor)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다음주에 여러 날 동안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내일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단다. 여기저기서 젊은 직원들의 불만에 찬 한숨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전에도 그랬듯이 그럴 때 앞장서는 것이 내 역할이다. 주말근무 대신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루 쉬기로 하고 모두 주말근무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차! 이번 주말에는 감자밭 잡초를 제거한 후에 친구 가족과 함께 가까운 핫산(Khasan) 해변으로 놀러 가기로 했었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내와 아들에게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ond farm, Kamishovoe Farm. As it takes us more than half an hour to get to the farm, we need to hurry so that we won't waste more time on the road than at work. Also, because the fields are divided into small fields, it takes a quite long time to go in and leave out the fields. But working in an open field makes me feel proud of being born in Russia and working at Ubikom. This is when I have a conflict between my desire to have my son in 10th grade at Shukola (equivalent to 2nd grade in High school) follow my footsteps and my desire to have him go to a university in Vladivostok and get a better job.

We still have about two to three hours before the sunset, but I return with my colleagues to the Zkanovoe Farm in time to get off from work at 6 p.m. We report the task completed today and the fuel used to Alexander Nam and check the tractors' state. While sharing warm tea with colleagues, we discuss our plans for the weekend when Victor Nam, the farm labor supervisor, enters and tells us that we unfortunately also have to work the following day, a Saturday, as much rain is expected next week. I hear sighs here and there among the young staff. But as usual, it is my role to lead in such circumstances. We agree to rest a day of next week and work on the weekend instead. Ah! This weekend, I had planned to weed out my potato field and then rest at the Khasan beach with my family and friend's family. I am worried what to tell my wife and son once back home about the necessary change of plan.



유니젠 러시아 농장의 모습

러시아 하면,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 털모자와 털코트,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연상하기 쉽다. 거대한 농기계가 마치 점처럼 작게 까마득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농장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반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유니젠 러시아 농장이다.

에코넷이 기능성 소재의 원료를 추출할 천연약용작물을 대량 재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긴밀한 러시아 연해주(Prymorsky Krai)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현 농장으로부터 약 350km 북쪽에 위치한 하롤군(Khorol county)에 2개 농장, 8,400ha의 밭을 임차하여 쌀과 콩을 재배하며 대규모 농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구축했다. 2001년에는 핫산군 크라스키노 지역(Khasan County, Kraskino sub-county)으로 2,150ha의

The view of Unigen Russia farms

When we think of Russia, we often imagine snow covered Siberian fields, fur hats and coats, and beautiful women. It is not easy to imagine farming equipment crossing large fields like small dots. Unigen Russia farms are what challenges such general conceptions.

The history of ECONET starting large farms in Prymorsky Krai, which is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close to Korea, with the purpose of mass farming natural plants and herbs with medical effects from which functional ingredients for ECONET products are extracted dates back to 14 years ago in 1998. Back then, we leased two farms of 8,400 ha large in Khorol county at 350 km north of the current farms to produce rice and soybean while practicing management of large farms in the long-term. In 2001, we moved and leased the land of 2,150ha large in the Kraskino sub-county, Khasan County.

2011년 유니젠 러시아 영농 현황 The status of Unigen Russia farms in 2011



(단위 Unit : ha)

구분 Category	총영농면적 Total farming area	황금 파종 Scuterallia baicalensis sowed	황금 재배(2~6년) Scuterallia baicalensis growing(2~6 years)	콩 파종 Soybean sowed	기타 Others
전체 Total	553	52	161	280	60
초카노브 농장 Zkanovoe Farm	258	20	93	96	49
까미쇼브 농장 Kamishovoe Farm	295	32	68	184	11

※ 기타 : 대부분 날씨로 인하여 파종하지 못한 밭 등 ※ Others: Fields not to be sowed because of bad weather, etc.



토지를 임차하여 이전했다. 크라스키노(북위 42° 47', 동경 130° 46')는 연해주 남서쪽 끝(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280km)에 위치한 핫산군의 중요한 국경도시다. 중국(훈춘(Hunchun)으로부터 25km)과 북한(두만강으로부터 57km)과 매우 가까워 가까운 미래에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유니젠 러시아의 농장(이하 러시아 농장 - 러시아 회사명 유비콤(Ubikom: Unigen Biomass Complex))은 2004년 경작지(즈카노브 농장-제1농장(Zkanovoe Farm-1st Farm), 까미쇼브 농장-제2농장(Kamishovoe Farm-2nd Farm))를 포함한 2,150ha를 49년 임차하는 재계약을 했다. 또한 러시아 농장은 바다와 연결된 호숫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및 연수시설(살랴나 지역)과 농장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가공·저장할 수 있는 시설(크라스킨스크예: Kaskinskoe, 49ha)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농장은 서로 약 10km 떨어진 즈카노브 농장과 까미쇼브 농장, 2개의 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농장은 각각 약 300ha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길과 호수 등 경작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실 경작지는 553ha로 현재 황금과 콩을 재배하고 있다. 당초 크라스키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토지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채소를 재배했으나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기능성 작물을 재배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는 주작물로 유니베스틴의 원료인 바이칼린(Baicalin)을 추출하는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을 재배하고 토지 개량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콩을 윤작하고 있다.

Kraskino at northern latitude of 42° 47' and eastern longitude of 130° 46' is an important city bordering North Korea and China in Khasan County located at the southwestern end of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280km from Vladivostok). Located at 25 km from Hunchun, China, and 57 km from Duman River of North Korea, it is a region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e near future.

We have signed new contracts with the Government of Maritime Province of Russia in 2004 for the lease for 49 years of the Unigen Russia far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ussia farms), the Zkanovoe Farm or the first farm and the Kamishovoe Farm or the second farm of 2,150ha large. Also, in the Russia farms, we are managing facilities in Kraskinskoe of 49 ha to process and store farmed goods produced in the farms as well as a guest house and training facilities located close to a salt lake linked to the ocean.

The Russia farms are composed of two farms, that is, the Zkanovoe Farm and Kamishovoe Farm, located at 10 km from each other. The two farms are each on about 300 ha large farming land with total actual farming land except for roads and lake of 553 ha where Scutellaria baicalensis and soybean are currently produced. When we initially moved to Kraskino, we test farmed vegetables to check the productivity of the land and drew up a plan to farm functional crops with the possibility of distributing them to the world market in the long-term. Currently, we are farming as main crops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from which Baicalin, a main ingredient of



러시아 농장에는 기획 및 법무담당, 트랙터 운전기사, 농기계 수리전문가, 회계와 물품관리직원, 시설경비 등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을 가진 51명의 직원들이 한가족처럼 근무하고 있다. 러시아 농장은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경작하기 위해 트랙터 11대(130마력 3대, 65마력 8대), 콤바인 2대를 비롯한 각종 차량과 작업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황금과 콩을 건조·가공하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와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명실공히 생산과 가공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업회사로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유니젠 러시아 농장의 하루와 일년

러시아 농장의 하루는 커다란 트랙터 엔진 소리로 시작한다. 퇴근 전에 다음날 작업 내용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당일 날씨와 상황에 따라 업무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영농관리자회의와 영농기술자회의를 통해 작업을 다시 확인 받는다. 각자 관리하는 트랙터를 정비하고 작업기를 부착하고 연료를 지급받는 과정은 마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전투부대를 연상시킨다. 근무 시작시간은 오전 9시이지만 대부분 영농직원은 30분 전에 출근하여 자기 농기계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트랙터 기사들은 동료들보다 먼저 지시 받은 밭으로 이동하고자 경쟁하는 것이 보통이다. 점심 식사는 통상 농장 안 식당을 이용하지만 츠카노브 농장 이외의 지역은 이동시간이 길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영농지원팀이 식사를 미리 운반하여 현장에서 식사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작업시간, 작업면적, 사용 연료량 등을 모두 꼼꼼하게 보고해야 하고, 기록을 맡은 직원이 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는 마무리된다. 모든 직원은 다음날 업무를 지시 받은 다음 오후 6시에 퇴근한다.

러시아 농장이 위치한 크라스키노 지역은 비교적 북방(북위 42°)이라 1년 중 영농이 가능한 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7개월로 매우 짧

Univestin is extracted and crop rotating soybean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and improve the land.

In the Russia farms, 51 staff members of Korean, Russian and Chinese nationalities are working as a family as planning and legal staff, tractor drivers, farming equipment repair mechanics, accounting and goods management staff and facility security officers. To effectively farm the large Russia farms, all kinds of vehicles and machines including 11 tractors (three of 130 horse power and eight of 65 horse power) and 2 combines are used. In addition, machines and facilities to dry and process *Scuterallia baicalensis* and soybean and to store them in the long-term are managed, dutifully building the grounds as a farming company that produces and processes crops.

A day and a year of Unigen Russia farms

A day at the Russia farms starts with the noise of large tractor engines. Before leaving for work, what is to be done the following day is ordered. But because the task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weather and the situation of the day, what is to be done on a day is reconfirmed through the farming managers' meeting and the farming technicians' meeting in the morning. The process of each checking the managed tractors, sticking working devices and getting fuel reminds us of a troop getting ready for war. Work starts at about 9 a.m. but most of the farming staffs usually show up 30 minutes early to check their farming equipment. In particular, tractor drivers usually compete to move their tractors to the designated fields first. Lunch is usually provided in the cafeteria in the farm, but because it takes long time to go to the regions other than the Zkanovoe Farm, the supporting team brings the meals in advance to save fuel and staffs have meals at that site. The staff must meticulously report the work-



다. 그런데다가 파종기(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와 수확기(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에 비나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맑은 날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날씨 조건에 따라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 기간에도 강우 등으로 평일에 영농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작업강도도 매우 쉼 편이다.

러시아 농장의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는 여름 농장과 마찬가지로 파종기와 수확기다. 파종작업은 그 해 농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고, 수확작업은 그 해 농사의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러시아 농장은 이 시기에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 따라 영농작업을 조금만 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농장은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5월초부터 파종을 준비한다. 자주 밭을 둘러보아 해동된 땅이 마를 때에 맞추어 이미 짙은 흙을 없애고 흙을 으깨어 평평하게 고른다. 콩은 상대적으로 많은 작업이 가능한 파종기를 이용해 바로 파종한다. 하지만 황금은 작업기를 이용해 두둑을 만든 다음, 미세종자(크기가 1-2mm로 크기가 매우 작은 종자)를 파종기를 이용해 파종하는데, 황금 파종은 직원 중에서도 고급 트랙터 기사 2명만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집중과 정밀성을 요구한다. 크라스키노 지역은 봄에 비가 잦은 편이고, 한번 비가 오면 3-5일은 밭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작업하기 좋은, 날씨 맑은 날을 기다리다 보면 평일과 주말을 가릴 수 없고, 그나마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목표 면적의 90% 정도라도 파종할 수 있다. 파종 이후에는 넓은 면적에 발생하는 다양한 잡초들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데 대부분 작업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 농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화학적인 잡초제어 방법을 지양한다. 정기적으로 작은 쟁기를 이용하여 고랑 사이 풀을 제거하면서 흙을 덮어주고, 작물보다 위로 자란 잡초는 회전날개를 가진 제초기로 잘라주는 방법 등, 친환경적이고 영농활동과 생태보존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잡초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비나 눈, 서리가 수확작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 눈과 서리는 수확을 못하게 함으로써 생산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봄 파종작업보다 2배 이상 강도 높게 작업하여야 한다. 2010년의 경우 콩 140ha를 수확하기 위해 7일 정도 새벽 4시까지 작업한 적도 있다. 황금은 콩과 달리 최소 2년은 재배해야만 상품성이 있는 황금뿌리를 수확할 수 있다. 재배기간이 길고 수확과 동시에 건조시켜야 주요 성분(바이칼린, Baicalin)의 변질로 상품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함께 재배하는 콩에 비하여 재배기간이 2배 이상 길

ing hours, worked field, and fuel used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ords end their day recording and organizing the data. All staff is informed of their following day's work and get off work at 6 p.m.

The Kraskino region where the Russia farms are located, have very short farming periods of about six to seven months in a year from May to November because they are located at northern latitude of 42°. Further, we must work hard on clear days during the sowing period (from mid-May to late June) and harvesting period (from early October to early November) because it rains or snows often. During these periods, it is usual to work in the evening or weekends depending on the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rest of the time when it is not easy to farm because of heavy rain or other weather conditions, the staff often gets to work on weekends and late in the evening, so the work load is heavy.

The busiest time in the Russia farms is during the sowing and harvesting periods as with most farms. The sowing determines the potential and possibility of a year's farming and the harvesting confirms the results of a year's farming. But the Russia farms sometimes get to farm little or do not get to farm at all depending on rain or snow even during these periods. Therefore, the staff is always vigilant of the weather.

The Russia farms prepare for sowing from early May when the land frozen during the winter starts to thaw. The staff checks often the fields from which to remove already growing weeds in time of thawing and mash the soil to make it even. Soybean is sowed during the sowing period when much work is possible. But for *Scuterallia baicalensis*, ridges between the fields are made using farming equipment before sowing fine seeds (very small seeds of 1-2mm large) during the sowing period. Sowing *Scuterallia baicalensis* demands high concentration and precision with only two high-quality tractor drivers of all the staff being able to sow. Kraskino has frequent rain in the spring and once it rains, farming equipment cannot enter the fields for three to five days. Therefore, the staff must wait for clear days good to work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id-week or a weekend and work for more than 12 hours a day to sow at least 90 percent of the target area. After sowing, the staff spends most of the working time to effectively control the various weeds forming in large areas. The Russia farms prefer to resort to chemical removal of weeds to the possible extent even if it costs more. The staff regularly makes efforts to use eco-friendly and sustainable farming methods to preserve the ecosystem such as using small plows to remove weeds between the furrows and to cover them with soil and mowers with rotating wings to remove weeds growing over the crops.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수확 후 가공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황금과 콩의 수확이 마무리 된 후에는 다음 해 봄 영농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땅이 얼기 전에 반드시 가을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숨 돌릴 틈 없이 영농작업은 계속된다.

러시아 농장의 겨울은 다른 시기보다 영농업무는 많지 않지만 대신 농기계 정비, 직원 기술교육, 영농 자격증 신규 취득 및 보수교육, 법정휴가(근무기간에 따라 30-60일인데 러시아 정부는 반드시 휴가 갈 것을 권장한다. 영농작업의 특성상 대부분 직원들은 겨울에 휴가 가고 있다.) 등으로 대부분 바쁘게 새해를 맞이한다.

유니젠 러시아 농장의 바람

러시아는 주변국가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고, 특히 연해주 지역은 인구가 적어 전문 농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가도 대한민국에 비해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기 힘든 나라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러시아 농장은 크게 두 가지 바람을 갖고 있다.

첫째, 바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양과 우수한 품질을 가진 황금과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황금은 금년에 비로소 수확 후 품질 저하가 없는 정밀한 건조과정을 도입하여 과정에서 수확, 그리고 수확 후 가공까지 전체 체계를 갖추어 가을에 정상적인 수확과 건조·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콩은 작년에 140ha를 파종·수확했는데 ha당 1톤 정도 수확했고 금년에는 280ha를 파종하여 작년보다 향상된 수확량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들은 금년이 러시아 농장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한다. 농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직원의 실력 향상과 복지 개선이 약속한 대로 추진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직원과 농장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직원들

In the fall, rain, snow or frost critically determines the harvesting. In particular, snow or frost obstructs harvesting and critically reduces the yield. As such, the staff must work twice as hard as the sowing period. In the case of 2010, to harvest 140 ha of soybean, the staff worked till 4 a.m. for seven days. Unlike soybean, *Scuterallia baicalensis* must be farmed for at least two years in order to harvest roots with commercial value. The farming period is long and the roots must be dried as soon as harvested to prevent Baicalin, a main chemical component, from spoiling and losing commercial value. Compared to the soybean farmed together, the farming period is not only twice as long but also a lot more complicated demanding precise harvesting and processing. After harvesting *Scuterallia baicalensis* and soybean, fall plowing must be carried out before the land freezes for smooth farming in the spring. Therefore, farming must continue without a break.

The winters at the Russia farms require less work than at other times, but the staff spend a busy time welcoming the new year by taking legal vacation (30 to 60 days leave are given depending on the days worked and the Russian government strongly recommends the staff to go on vacation. Because of the condition of farming, most of the staff goes on vacation in the winter.), putting in order farming equipment, getting technical training, acquiring farming licenses, and getting repair training.

Wishes of the Unigen Russia farms

Russia has a relatively short life expectancy compared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has a low population making it difficult not only to find farming manpower with expertise, but also to manage farms because the prices are twice that of Korea. The large Russia farms managed despite these adverse conditions have two major wishes.

The first wish is to continuously develop the farms so that better quality *Scuterallia baicalensis* and soybean may be produced. For the production of *Scuterallia baicalensis*, a precise drying process not damaging the quality of the roots after harvesting was introduced this year to prepare for normal harvesting, drying and processing in the fall with a comprehensive system from sowing to harvesting and processing. Last year, 140 ha of soybean were sowed and harvested and one ton was harvested per hectare. This year, 280 ha have been sowed and we expect more than the amount of harvesting of last year.

The staff says this year is a new beginning for the Russia farms. The farms have been systematically managed and staff welfare and improvement of the staff competency have been pursued as promised, building trust between the staff and directors and making the staff form a sense of ownership. Based on

은 조금씩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 농장은 과거보다 나은 농장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훌륭한 농장으로 발전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둘째, 바람은 직원 개인과 가족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농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급여체계 및 근무조건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각종 기념일을 기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대하는 봄 농사 마감 축제와 송년 파티 등을 마련하자 직원들은 농장에 대한 소속감과 동료애를 실감하게 되었다. 나아가 직원들이 힘들어 농사지는 감자와 채소를, 비록 적은 양이지만 크라스키노 학교와 유치원에 기증하고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적 또는 사적 애경사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농장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커졌다. 게다가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보수 교육, 안전관리 교육, 건강관리 및 금주·금연 학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가족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즉, 농장에 근무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 향상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함께 향상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더 나은 농장으로 발전하리라는 소망을 키워가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러시아 농장이 자랑거리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게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러시아에 들어와 대규모 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쉬지 않고 발전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기능성 천연물질의 공급기반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그런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 밝은 내일을 준비한다.

글 | 최재영 법인장 | 유니젠 러시아

confidence that the farms can improve, the staff is strongly hop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 farms into excellent farms with high profitability.

The second wish is to realize the individual and family dreams. The systemic management of the farms not only normalized the salary payment and working conditions, but also raised the spirit of the staff by celebrating their birthdays and all kinds of commemorative days. The holding of festivals commemorating the end of spring farming and year-end parties by inviting the families of the staff has enhanced the staff's sense of belonging and love for their colleagues. Further, the staff experience donating potatoes and vegetables arduously farmed by the staff, though in small amounts, to schools and kindergartens in Krasnoski and supporting official and personal events occurring in the neighborhood have raised the pride of the staff. In addition, the active support for the staff acquisition of licenses, maintenance training, safety management training, health management and smoke and alcohol free schools have earned favorable responses from the staff's family. That is, the staff have personally experienced that not only their competence has improved but also the family's happiness by working at the farms, making them dream of a better future.

Although the Russia farms were so far sites requiring supplementary work and improvements than being farms to boast about, we pledge to work harder to more successfully and stably complete the functions and roles as a supply base of functional natural ingredients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driving force that have continuously driven the development of our large Russia farms since their establishment. We are preparing for a brighter tomorrow based on these hopes.

By Jae-Young Choi President | Unigen Russia



전 세계 에코네시안(Econetian)들의 지혜의 전당이 될 위즈덤플레이스(Wisdomplace)가 6년간의 사업 추진 끝에 2011년 8월 4일 마침내 개관했다. 에코네시안들에게 생각과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과 가치를 제공하여 줄 목적으로 건립한 위즈덤플레이스는 유니젠 러시아 농장, 호수와 바다의 풍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살로냐 호수 부근의 풍광이 빼어난 언덕에 자리잡아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위즈덤플레이스는 2005년에 건립을 결정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에 설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어 2007년 상반기까지 시행이 잠시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7년 7월에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008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11월에 착공하였다. 2009년에 기본골조를 완성하고 2010년 말 구조 확정을 거쳐 2011년 내부마감공사를 끝으로 지난 8월 4일 마침내 개관에 이르게 되었다.

The Wisdomplace which will become a hall of wisdom for all ECONETians worldwide has finally opened on August 4, 2011 after six years of preparation. The Wisdomplace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to expand the depth and width of wisdom and thoughts of ECONETians and provide time and value to communicate with nature. It boasts of beautiful scenery situated on a hill around the Solyonoe lake in Russian farms of Unigen Russia with a view to the lake and ocean.

The establishment of the Wisdomplace was decided in 2005 and detailed plans were drawn up in the first half of 2006. But some difficulties took place during designing in the second half of 2006 and it underwent the ordeal of being temporarily held until the first half of 2007. But in July 2007, its construction was again pursued and finally decided upon. In September 2008, the design was completed and its construction began in November 2008. In 2009, the basic framework was completed and its address confirmed at the end of 2010. With the completion of the interior construction in 2011, the hall has finally opened on August 4.

The Wisdomplace boasts of a total 33,000m² land and is composed of two

에코네시안의 지혜의 전당 위즈덤플레이스 개관

Opening of the Wisdomplace, a Hall of Wisdom of ECONETians

위즈덤플레이스는 총 33,000m²(10,000평)의 부지 위에 2층으로 구성된 메인롯데지(Main Lodge) 1동과 단층의 스몰롯데지(Small Lodge) 2동으로, 총건축면적 401m²(121.3평), 연면적 731.2m²(221.2평) 규모로 건설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2인용 객실 8개와 회의장을 겸한 거실, 25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위즈덤플레이스 개관식에는 에코넷 이병훈 총괄사장, 정희경 청강학원 이사장, 이수형 청강문화대학 총장 등 에코넷 내빈과 송영길 인천시장, 신낙균 국회의원, 정태근 국회의원, 우상호 민주당 전대변인 등 정·관계 인사들,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경제계 인사 그리고 유니베라 대리집 대표단 등 총 1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위즈덤플레이스의 역사적인 개관을 축하하였다.

글 | 최재영 법인장 | 유니젠 러시아

floors of Main Lodge complex 1 and two complexes of one floor Small Lodge. The total construction area is 401m² and the floor area is 731.2m². Main facilities include eight guest rooms for two, a meeting room and a living room, and a restaurant where 25 people can have a meal.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isdomplace, a total of 100 VIPs, including ECONET Chairman and CEO Bill Lee, Chairman of Cheongang Academy Helen Chung, President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Soo-hyung Lee, ECONET VIPs, Mayor of Incheon Young-gil Song, and politicians includi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ak-kyun Shin and Tae-keun Jeong, and former spokesperson of the Democratic Party Sang-ho Woo as well as dignitaries in government and politics, and business leaders including CEO of Humax Dae-gyu Byun, the founder of Daum Communications Jae-ung Lee, and representatives of Univera distributors, participated to congratulate the historic opening of the Wisdomplace.

By Jae-Young Choi President | Unigen Russia



위즈덤플레이스는 숙제다

Our Assignments for Wisdomplace

잠시 일상을 잊을 만큼 수려한 자연 환경이 주는 아우라는

자연스럽게 방문자들의 대화나 생각의 공간을 확장시켜 폭넓은 성찰을 유도한다.

이 장소와 건물에 '지혜를 구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

'위즈덤플레이스'라는 이름 붙이게 된 첫 번째 또는 외형적 이유일 것이다.

Aura from these historical context and gorgeous natural environment

extend the space of conversation and thinking of visitors and encourage their introspection.

Due to this reason, this place was named, 'Wisdomplace' in the meaning of the 'place seeking for wisdom.'

'러시아 연해주 하산군 샤희쵸르스크에 마을, 샤희쵸르스카야 거리 20번지(살료나(Solyonoe 호수 변)' (Russia, Primorsky territory, Hasan, Shahchorskoe, Shahchorskaya 20)- 2011년 8월 4일 공식 개관한 에코넷 '위즈덤플레이스'의 주소이다. 유비콤(유니젠 러시아의 크라스키노(Kraskino) 농장) 부지 내에 있으며 러시아어로 짜다는 의미인 살료나 호수가 전경으로 펼쳐지는 곳이다.

'위즈덤플레이스'는 약 만여 평의 부지에 4개의 객실과 서비스 시설을 갖춘 메인룻지(Main Lodge) 1개 동과 2개의 객실로 구성된 스킨룻지(Small Lodge) 2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본시설은 최적 15명에서 최대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나 이용방법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건축을 포함한 이 장소는 '투박한 격조'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되었다. 가능한 한 장식과 치장을 배제하고 재료의 물성을 담백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위즈덤플레이스(Wisdomplace)'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부응하여 이용의 편리는 유지하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대량생산시대의 치장을 통한 위장과 현혹의 일상 환경에서 벗어나 심신의 담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건축 자체보다 건축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환경과 아우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Russia, Primorsky territory, Hasan, Shahchorskoe, Shahchorskaya 20'; nearby Solyonoe lake is the address of 'Wisdomplace' of ECONET which was officially opened on August 4, 2011. It is located within the site of Ubikom (Kraskino farm of Unigen Russia), where people can see scenery of Solyonoe (meaning "salty" in Russian) lake.

'Wisdomplace,' composed of 1 main lodge with 4 rooms and service facilities and 2 small lodge wings with 2 rooms on the land area of about 33,000m², can accommodate 15 to 22 in its basic facility, but it can accommodate more persons.

This place was designed based on the concept of 'simple dignity', minimizing i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and simply maintaining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used for construction. This simple concept is in line with the meaning and purpose of 'Wisdomplace'; Wisdomplace should make users feel convenient, minimize damage to natural environment, help users to enjoy physical and mental simplicity, and be designed to maintain atmosphere where users can focus on the environment and aura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In this meaning, the exterior also maintains existing surroundings without additional land-

위즈덤플레이스 Grand Opening

2011.8.4

ECONET



기 조성을 디자인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체 옥외환경 또한 별다른 부가적 조정요소 없이 가능한 한 기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에코넷이 남방 식물자원, 특히 알로에 중심의 활동에서 천연물료 활동영역을 확장 성장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 약 650만 평의 부지에 북방 약용작물 농장개발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유비콤)을 조성했다. 이후, 관계자 및 관계사, 바이어, 연수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방문자들을 위한 대응 서비스 시설(게스트하우스) 마련이 필요해졌다. 또 농장이 위치한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미래에 대한 사유와 성찰에 유의미한 자극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강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병훈 총괄사장의 공공적 의지가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농장과 위즈덤플레이스가 위치한 이 크라스키노 지역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 중국 3국의 접경지대로 유럽에서부터 이어진 도로와 철길이 북한과 중국으로 갈라지는 기점이며, 지난 수천 년간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역사적 연원을 함께하는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잔잔히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위즈덤플레이스가 위치한 호수 앞을 지나가는 철도는 경원선과 시베리

scaping work.

ECONET, in an effort to grow its business from aloe-centered business to include natural products, established a farm of 2,150 ha aimed to crop and cultivate medicinal plants at Kraskino region in 2001.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arm, there were many more visitors there such as related persons, affiliates, buyer, and trainees, etc. due to various purposes and reasons. Consequently, accommodation such as Guest house was needed. In addition, Chairman & CEO Bill Lee took notice of the geopolitical condition of this area surrounding this farm, which give a stimulus to us to introspect and speculate on the future, so this project to build Wisdomplace started from his will for the public good to share the benefit of this area with more people.

Kraskino region where the farm and Wisdomplace are located is the borderland of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It is an intersection at which roads and railroads from Europe are divided into North Korea and China, and a region where many ancestral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Russia, experiencing rises and falls, had similar historical origin. The railroad which passes by the lake in front of Wisdomplace



아 횡단철도(TSR)를 이어주고 있으며 근대사 속에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현재 아주 가끔 북한의 누군가를 태운 열차가 은밀히 지나기도 한다. 또 발해시대 일본과의 교역로의 흔적과 근대 이주한국인들의 발자취,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능했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이 곳곳에 서려 있어 한국인들에게 특히 더 남다른 수밖에 없는 곳이다. 좀 더 크게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등 세계열강의 복잡한 은원과 역사적 흔적이 견고한 매듭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인문사적 맥락을 깊게 품고 있으면서도 잠시 일상을 잊을 만큼 수려한 자연 환경이 주는 아우라는 자연스럽게 방문자들의 대화나 생각의 공간을 확장시켜 폭넓은 성찰을 유도한다. 이 장소와 건물에 '지혜를 구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 '위즈덤플레이스'라는 이름 붙이게 된 첫 번째 또는 외형적 이유일 것이다.

이 위즈덤플레이스는 최초 논의 시점인 2005년 말부터 보자면 햇수로 7년 만에 1차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규모 대비 7년이라는 소요시간은 개관식 인사에 자주 나왔던 '거친 환경과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라는 표현만큼이나 이 사업의 과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또 사업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러시아의 상황과 문화적 차이,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에 18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연해주와 물류조건과 한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변방의 오지에 속하는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적 한계는 이 사업이 감당해야 하는 기본조건이었으며 고단함의 주요원인이었다.

connects Gyeongwon Line with Trans-Siberian Railroad (TSR) and remind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east Asia and Europe. A train which carries a VIP from North Korea sometimes secretly passes by. In this area, there are traces of historic trade route of Balhae and Japan, traces of Korean immigrants and Korean anti-Japan movement, etc., and thereby this is memorable and unique area to Koreans. To take a wider point of view, this area is the place where historical traces of Korea, China, Japan, Russia, and Europe, etc. are still remaining.

Aura from these historical context and gorgeous natural environment extend the space of conversation and thinking of visitors and encourage their introspection. Due to this reason, this place was named, 'Wisdomplace' in the meaning of the 'place seeking for wisdom.'

The 1st stage of construction of Wisdomplace was completed in about 7 years from when its establishment was discussed first in 2005. The period spent -7 years- shows that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was tough, and there were a lot of devotion and efforts. The factors such as unstable circumstances of Russia in the midst of transition from the socialism to the market economy, cultural gap between Russia and Korea, limitation of the Maritime Province where 1.8 M people were living at the area 1.6 times larger than Korea, and regional handicap of Kraskino, etc. were the basic requirements and reasons of difficulties which this project of establishment of Wisdomplace should bear.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추진 방식과 위기 대응 등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사업에 참여한 필자를 포함하여 에코넷 역량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부인으로서 외람된 표현이겠으나, 그런 점에서 이 과정에 대한 복기와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경험의 자산화와 역량보완이 이 프로젝트가 에코넷에 던진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싶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코넷과 에코네시안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재 위즈덤플레이스가 1차 공사 완료로 기본적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설 등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06년 말 1차 정리된 이 프로젝트의 기본목표와 개념은 유티콤에 한정된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에코넷의 위즈덤플레이스로서 에코넷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또 더욱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너무 거창하거나 주제넘은 해석일지 모르나, 그런 점에서 위즈덤플레이스는 에코넷 활동의 많은 부분과 연계 고리를 갖고 있으며 더 넓게 성찰해 볼 수 있는 복합적 담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위즈덤플레이스'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깊게는 에코넷에게 지혜란 무엇일까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유도하기도 한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의 접근은 위즈덤플레이스의 장소적 고착을 자유롭게 하여 제2, 제3의 위즈덤플레이스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게스트하우스의 역할로 충분했다면 이전의 옐로우하우스 (Yellow House: 그간 유티콤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해온 컨테이너하우스)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풍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검토가 두 번째이자 어쩌면 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러한 숙제에 내제된 여러 고리들에 대한 성찰을, 또 에코넷에게 지혜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장소에 '위즈덤플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인 두 번째 또는 좀 더 본질적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위즈덤플레이스'라는 컨셉트가 에코넷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또는 브랜드로 성장하여 제2, 제3의 위즈덤플레이스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이례적으로 끝도 없이 내리며 공사마무리와 준공식 준비를 고단하게 만들던 비는 8월 4일 아침 개관식이 끝날 무렵 거짓말처럼 개었다.



글 | 이경복 미술가

There was a lot of trial and error during handling these difficulties, which showed capabilities of ECONET including me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In this process, the first assignment assigned to ECONET seemed the introspection,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Though it was not perfect, this project seemed to show growth potential and possibilities of ECONET and ECONETians by the result of its establishment. Meanwhile, Wisdomplace has basic exterior through the 1st stage of construction completed,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be complemented. Development of operation program and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goal of Wisdomplace are remaining assignments to complete.

At the end of 2006, the basic goal of this project was decided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of ECONET and play a role as an engine to develop more creative program as a Wisdomplace of ECONET not as a mere guest house. It may be too high-sounding or impudent, but I think that Wisdomplace has a lot of connection with activities of ECONET and possibilities as a compound discourse through which people can introspect themselves further. This enables possibility for 'Wisdomplace' to be regarded as software not as hardware, and also raises fundamental question about what wisdom means to ECONET. Approach to Wisdomplace not as hardware but as software enables to imagine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and 3rd Wisdomplace.

If Wisdomplace was to play only a role as a guest house, to repair the former Yellow House which is a container house Ubikom used as a guest house would be enough. In this sense, question and review on possibilities of Wisdomplace might be another and more meaningful assignment.

I also think that introspection contained in these assignments and the fundamental question for ECONET about what is wisdom may be the second and more essential reason why these buildings were named 'Wisdomplace.' 'Wisdomplace' is too attractive to be a simple guest house to accommodate guests, and thereby I expect this place can grow to be a more meaningful program or brand, and finally the 2nd and 3rd Wisdomplace can be created.

Endless rain which became an obstacle to complete Wisdomplace and to prepare a building dedication ceremony stopped like magic in the morning on August 4, the day of the ceremony.

By Kyung Bok Lee Artist & Designer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제막

Unveiling Ceremony
of Monument in Memory
of the 12 Independence Activists



에코넷은 유니젠 러시아 농장 내에 안중근 의사 등 12인의 단지 동맹을 기리는 '단지동맹기념비'를 세우고 주변을 단장하여 작은 공원을 조성했다. 2011년 8월 4일 12시에 국내외 정치·경제인사 20여 명, 유니베라 대리점 사장단과 에코넷 방문단, 러시아 교민, 러시아 정부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했다.

새로 세운 기념비는 높이 4m, 폭 1m 정도의 큰 비석과 높이와 폭이 각각 1m 정도인 작은 비석 등 2개의 검은색 비석이다. 공원의 입구에는 지난 2001년 광복회가 처음 세운 기존 기념비가 함께 들어섰다.

단지동맹기념비 조성 사업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동양 평화의 영웅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지 11인이 구국을 위해 단행한 단지동맹의 의의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에코넷은 옛 단지동맹기념비 설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기존 기념비의 의미를 확장하고 보완한 새 기념비를 유니젠 러시아 농장 내에 기존의 기념비와 함께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관리부재에 따른 기념비 훼손문제나 기존 기념비가 국경지역 내에 위치하여 발생했던 관광객의 방문편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애국가와 러시아 국가 연주로 시작한 제막식은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공감하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박유철 광복회장의 인사말,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 낭독, 한국 귀빈들의 축사에 이어 러시아 정부 귀빈들의 축사가 호응했다. 또한, 러시아 문화국장이 단지동맹기념비와 공원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발표했을 때 한국의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았던 양준모 씨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지은 '장부'를 부르는 광경은 한·러 모든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다. 동맹비 제막과 헌화, 오찬에 이르기까지 한국 측 참석자들과 러시아 측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글 | 김남규 차장 | 전략기획팀 | 에코넷

ECONET established a monument in memory of 12 nationalists including the patriotic martyr Joong-geun Ahn who cut off a finger joint of their fingers as a sign of pledge for Independence of Korea in a farm of Unigen Russia and made a small park. At 12:00 on August 4, a magnificent unveiling ceremony was held participated by about 200 participants including 20 domestic and overseas figures of politics and economy, heads of Univera Distributors, ECONET visitors, Korean-Russian, and government officials of Russia.

This new monument is composed of 2 black memorial stones; one is 4m in height and 1m in width and the other is 1m in height and 1m in width. At the entrance of the park, the old memorial monument established in 2001 by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was moved to stand.

The project to establish this memorial was aimed to honor th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Joong-geun Ahn who assassinated Ito Hirobumi at Harbin Station of Manchuria on October 26, 1909 and 11 nationalists who strived to liberate mother country on daring to cut their fingers.

ECONE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preserve the memorial since establishment of the former memorial. By establishing new memorial along with the former one at Unigen Russia farm, ECONET could solve the problems of care and inconvenience of visiting by visitors, etc.

Meanwhile, the unveiling ceremony which began with playing of national anthem of Korea and Russia became memorial and meaningful event where Koreans and Russians felt sympathy. Opening address by the Chairman of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Yuchul Park, and congratulatory speeches from Prime Minister Hwang-sik Kim, and other honored guests were followed by congratulatory speeches by government officials of Russia. When official approval of the monument and the park was announced, Korean participants gave a very big applause. Mr. Joon-mo Yang who played a role of Joong-geun Ahn in the musical Hero sang "The Song of Corean" written by the martyr Ahn in prison made all the participants completely moved. All the participants from Russia and Korea made this ceremony meaningful through entire event from memorial unveiling to an offering of flowers, etc.

By Namkyu Kim Deputy General Manager | Strategy Planning Team | ECONET

역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에코넷에 감사하며



Thanks ECONET for Valuing History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역사적 사실은 때로 한 개인의 일생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안중근 의사와 단지동맹(斷指同盟)도 그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우리 국민 중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살해한 죄명으로 중국 여순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셨다. 그런데 옥중에서 쓰신 50여 점의 유묵에는 낙관 대신 손바닥 인장이 찍혀 있고, 한결같이 안 의사의 손가락 중에 약지의 마디 일부가 잘리고 없다. 바로 단지동맹의 흔적이다. 하지만 안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단지동맹 공모자를 단 한 사람도 발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감되는 이도 없었다.

단지동맹. 그 이름만큼이나 비장한 각오로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 국권회복의 결의를 다졌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니, 갑자기 가슴이 터워지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 세상 어느 음악으로 그날의 정경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으랴!

지난 8월 4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에 다녀왔다. 안 의사를 비롯한 11인의 항일 독립투사들이 단지동맹을 결의했던 그곳에서 열리는 단지동맹비 제막식에 주최자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단지동맹의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화와 자유에 대한 의지'를 상징화한 새로 조성된 조형물은 모두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돌에는 "1909년 3월 5일경 12인이 모이다", 작은 돌에는 "2011년 8월 4일 102년이 지난 오늘 12인을

A historical truth will reveal itself at times as an individual's life is uncovered. The patriotic martyr Joong-geun Ahn and his comrades' pledge for Independence of Korea with cutting off a finger joint will be one of them. As most Koreans know, the patriot Ahn was imprisoned and put to death in prison of Dalian, China, for having assassinated a top Japanese official, Ito Hirobumi. The fifty some autographs he wrote while in prison have a palm seal instead of a stamp and in all of them, a joint of the ring finger of the palm seal was missing. It is the mark of cutting off a finger joint on the pledge for Independence. But the patriot Ahn did never disclose any name of the comrades on standing trial, so no one else was imprisoned.

A pledge for Independence with cutting off a finger joint; Thinking of the situation that they cut a part of their body on pledging to liberate mother country makes my heart beat. No music in the world could play the pathetic scene on that day!

On August 4, I visited Kraskino in Russia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monument in memory of the patriotic martyr Joong-geun Ahn and his 11 comrades' pledge for Independence from Imperial Japan with cutting off a finger joint, in order to act as host to the ceremony.

Two structures symbolizing "the will for peace and freedom" in order to realize the universal value of the pledge, which must be sought by human society were built there. On the large stone was engraved a phrase, "12 people gathered around March 5, 1909" and a phrase, "Remembering the 12 people today on August 4,

기억하다"라 각각 새겨 넣어 단지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높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의 낡고 훼손된 단지동맹비도 바로 곁에 세움으로써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대일항쟁기, 러시아 이주 한인의 집단 거주지였던 러시아 크라스노 지역은 안 의사와 그의 동지들이 근거지로 삼고, 국내 진공작전을 비롯해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인 항일 의병기지로 유명하다. 안 의사는 그곳에서 김기용(룡), 백규삼, 황병철(길), 조용순, 강순기, 강창수,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충, 김천화 등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무명지(약지) 첫마디를 잘라 그 선혈로 '대한독립' 네 글자를 쓰면서 국권 회복 의지를 천명하셨다. 이후 8개월 만에 결행된 하얼빈 의거는 바로 이 단지동맹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102년이 지난 후, 그곳에 단지동맹의 구국정신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후세들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사실 이에 앞서 10년 전인 2001년 10월, 단지동맹 기념비를 처음으로 그 지역에 세웠었다. 하지만 당초 기념비가 세워졌던 장소는 잦은 홍수로 침수피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인식부재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에코넷이 고증을 거쳐 2006년 관리가 쉬운 자사의 러시아 현지 농장 앞으로 비석을 옮겼지만, 그 지역마저 다시 국경지대로 편입됨으로써 러시아 보안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독립운동 사적비는 건립과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에코넷이 나서서 국경지역을 벗어난 또 다른 농장 부지를 선택 내어주어 우리 광복회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다시 기념비 세우는 작업을 3년에 걸쳐 추진하였고, 드디어 완공을 본 것이다. 이 일에는 에코넷의 러시아 현지 법인인 유니젠 러시아가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역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역사를 써 나가는 사회적 기업, 에코넷의 기업문화를 나는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역사적인 기념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여 이번 행사에 전액을 후원하게 되었다"는 에코넷에 감사하며, 에코넷과 같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수록 민족정기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글 | 박유철 광복회장

2011 after 102 years" was engraved on the small stone, therefore they expresse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pledge. It was very delightful that the old worn-out and damaged monument was moved next to this new monument.

The Kraskino region in Russia where Korean migrant lived in mass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 struggle for independence of Korea is where the patriot Ahn and his comrades took as a base and is famous for being the base of anti-Japanese rule soldiers who fiercely fought for independence of Korea. The patriot martyr Ahn with 11 other independence fighters including Gi-ryong Kim, Gyu-sam Baek, Byeong-cheol Hwang, Eung-sun Jo, Sun-gi Gang, Chang-su Gang, Won-ju Jeong, Bong-seok Park, Chi-hong Yu, Baek-chung Kim and Cheon-hwa Kim, cut off a joint of their ring fingers to pledge their will to fight for the liberation of Korea by writing "Independence of Korea" with the blood from the cutoff. Later, after eight months, the patriotic deed of the patriot Ahn at Harbin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resulted from this pledge. Today, 102 years later, we as descendants have erected stone monument on the same site to remember the national independence spirit of the pledge.

Actually, the first monument commemorating their pledge was erected in the region ten years ago in October 2001. But the stone was often damaged by floods and a lack of awareness among the local inhabitants. Therefore, ECONET carried out a historical research and moved the monument in 2006 in front of Russian farms of Unigen Russia where it was easy to maintain. But even that site became a bordering site where entry was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Russian authorities.

Not only are the erection of historical stones important, but also their use and management. ECONET stepped forth to provide a site in another farm outside the bordering region for the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and the Vladivostok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ursue the erection of the commemorative stones for over three years. At last, the erection of the stones has finally been completed. Unigen Russia as a company of ECONET in Russia has largely contributed to this project.

I respect ECONET's corporate philosophy as a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remembering history to convey it to the next generation and write a new history. This is something Korean companies should emulate. I thank ECONET, which claims that "preserving well historical monuments is the rightful responsibility of us as descendants and as such, we have fully supported this event." I believe the more socially responsible companies with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there are, the more Korea's national spirit will revive and develop the country.

By Yuchul Park Chairman |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유니베라 UBA 창업 과정 제1기

UBA Business Startup Course (The 1st Term)

정찬수 사장과 창업 과정 참가자들 People attended the UBA Business Startup Course, with Chan Soo Chung.



유니베라 한국은 2011년 제1기 UBA 창업 과정을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20일차로 진행했다. 촉박한 모집기간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참가하여, 그 중 12명이 수료하였고 6명이 대리점 개설을 확정했다. 또한 연이은 상담을 통하여 개설가능자 4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래 방편 유통의 성장은 양과 질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 동안 유니베라는 주로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주력했다. 그나마 소극적인 대리점 확대전략이 현장의 동기부여 미흡 등으로 성과가 미미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대리점 수가 정체하면서 영업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꾸준한 대리점 개설이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길이라면 기존의 대리점에 의존하는 확대전략의 한계를 극복한 체계적인 대리점 발굴·개설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또한 성급하게 대리점을 개설하다 보니 준비가 미흡하여 초기정착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2011년 창업 과정의 핵심 목적은 철저하게 준비된 대리점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개설 후에는 건강한 대리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Univera Korea has run the UBA Business Startup Course (The 1st term of 2011) for 20 business days from July 4 to July 29. In spite of a short recruitment period, 15 people attended the course, out of whom 12 people completed the course and 6 decided to open an Univera distributor. Successive business counseling resulted in securing 4 people who have a possibility to open an Univera distributor in the future.

In principle, the growth of direct sales comes from harmony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Taking a cool judgment, it seems true that Univera has focused on qualitative growth than quantitative growth. Passive strategy to increase Univera distributors resulted in poor performance due to lack of motivation. As a result, number of Univera distributors remains stagnant, affecting influence over overall selling. As continued opening of Univera distributors is a way to solidify base of sales environment, it is time to desperately need to find out and open Univera distributors. In addition, hasty opening of Univera distributors caused failure in stabilizing business owing to insufficient preparation. Therefore, thorough preparation for opening and appropriate training for such preparation are deemed required. Hence, the core goals of 2011 business startup course are to open distributors based on thorough preparation and make them sound and healthy after their opening.

세일즈 기법 강의 SalesSkill lecture





대리점 사장의 역할 강의 Lecture on the roles of heads of distributors.



UP체험학습 UP field training

2011년 7월에 시작된 UBA 창업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롭고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인 것이다. 4주 차로 이루어진 과정은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1주차에는 서번트 리더십과 유니베라의 역사와 비전 및 방문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에코넷 계열사 견학과 대리점 사장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2주차에는 병태생리 및 유니베라의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교육이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3주차에는 고객관리와 UP체험학습 및 세일즈 기법과 아침교실 운영방법 등을 체득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4주차에는 대리점 행정 및 회계와 세무 업무와 아침교실을 위한 강의 기법,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받고, 대리점 견학을 가졌다. 마지막 주인 만큼 사업계획서도 만들어보고 간담회와 퇴소식으로 마무리하였다.

1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10월 2기 창업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기 과정은 3주로 진행한다. 피교육자 모두가 대리점을 개설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 유니베라 UBA 창업 과정에 에코넷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글 | 이경원 본부장 | 영업지원본부 | 유니베라 한국

The UBA business startup course which began in July 2011 was the opportunity to find out new and continuous growth engine. This 4-week course was composed of various subjects. In the 1st week, attendees learned the servant leadership, Univera's history, vision, and overview of direct sales, and they visited companies of ECONET and attended lecture on the roles of heads of distributors. In the 2nd week, attendees were given training about pathological physiology and cosmetics. In the 3rd week, attendees had time to learn customer management, UP field training, sales skills, and morning class operation know-how, etc. And, in the last week, attendees learned about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of business of distributors, lecture skills, and image making, and they visited Univera distributors. In this last week, attendees had discussion session and closing ceremony, and had time to make a business plan.

By improving issues of concerns that were detected during the 1st term course, the 2nd business startup course, which will last for 3 weeks, will be opened in October. We will thoroughly prepare for the 2nd course so that we can reach the goal to make all the attendees open Univera distributors. All the ECONETians' attention and encouragement for Univera UBA startup course are deemed required.

ByKyeongwon Lee Director | Sales Support Division | Univera Korea



이미지 메이킹 수업 Image making Lecture



강의장 모습 The lecture room of the UBA business startup course



화장품 교육 Lecture about Univera cosmetics

유니베라 창업과정 1기 수료자 소감

Interviews with the attendees who completed UBA business startup course

4주간의 교육이 대리점 개설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병태생리와 성공한 사장님들의 운영사례가 좋았고 계열사 견학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힘들었던 점은 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 하는 것이었으나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매일 전쟁터에 나간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리점 운영에 성공할 것이다.

I received a lot of help from the 4-week training to open a Univera distributor. Especially, the sessions on pathological physiology and success stories were highly useful, and field trip to companies of ECONET impressed me. I had difficulties in going and coming to/from the training place, as it took 4 hours from my house, but the course was really helpful in spite of such difficulties. I will gain success in operating a Univera distributor with a firm resolution.

신향희 (병점 대리점 6년 근무 팀장 / 2011년 9월 대리점 개설)
Hyang-hee Shin (Worked for Byeongjeom distributor for 6 years, Team head / Opened Univera distributor in September 2011)

대리점 개설을 마음먹었던 초반에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개설을 눈앞에 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차에 창업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일즈 스킬 교육과 현 대리점 체험 등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I thought that I would have no difficulty in opening a Univera distributor, as I had worked for a head office of Univera for a long time, but when opening of a Univera distributor is just ahead, I didn't know what to do. I came to participate in the startup course, and could learn practical knowledge through sales skill training and field trip to other distributors, etc. This course was really helpful to me.

김소연 (본사 8년 근무 / 2011년 8월 대리점 개설)
So-yeon Kim (Worked for Univera Korea for 8 years / Opened Univera distributor in August 2011)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Design Your Life

이병훈 총괄사장이 어소시에이트들과 사진촬영하고 있다.

Univera CEO Bill Lee joins a group of Associates for a photo op between sessions at Design Your Life...The Next Step: Univera Convention 2011.





① 이병훈 총괄사장이 워싱턴 시애틀에서 열린 유니베라 컨벤션 2011에서 연설하고 있다. ECONET Chairman and Univera CEO Bill Lee addresses the attendees at Design Your Life...The Next Step: Univera Convention 2011 in Seattle, WA. ② 블루 다이아몬드인 론 앤 잔 보이야노브스키가 2011 올해의 어소시에이트상을 수상하고 있다. Blue Diamonds Ron and Jan Boyanovsky accept the 2011 U.S. Associate of the Year Award

유니베라 미국은 6월 8일에서 11일에 걸쳐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주 컨벤션 앤 트레이드 센터(Washington State Convention and Trade Center)에서 연례 컨벤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의 주제는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로써 유니베라와 함께 하는 어소시에이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유니베라의 목표를 상징하는 구호이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어소시에이트들이 참가했다. 많은 어소시에이트들이 이 날의 컨벤션을 대단히 유익했다고 칭찬했다. 주말 행사는 어소시에이트들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세션들과 흥미진진한 연설, 수상 발표 및 흥미로운 신제품, 도구, 특수 기술 소개 등으로 채워졌다.

컨벤션 행사는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 클럽의 하와이를 주제로 한 파티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참석자 모두 하와이 화환을 걸친 복장으로 입장했다. 하와이 스타일의 셔츠와 풀잎으로 엮은 스커트를 차려 입은 어소시에이트들은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전문 댄스 그룹인 호쿠라니 폴리네시아 댄서에게서 아름다운 홀라 춤을 배웠다.

이병훈 총괄사장을 비롯하여 스투어트 오킬트리, 스티븐 체네스키, 이들 '세 친구들(Three Amigos)'이 참석자들을 맞이하면서 첫날 공식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오션 투 오션 투어 여정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행사에 참여한 참이었다. 그들은 솜브레로와 판초 차림으로 무대로 올라와 마지막으로 합동 공연을 가졌고 이후 스투어트 오킬트리는 그의 후임이며 유니베라의 차기 사장인 랜디 반시노에게 자리를 넘겼다.

컨벤션 일정을 통하여 리더십 분야에서 국내 최고인 연사들이 탄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

Univera held its annual Convention at the Washington State Convention and Trade Center in Seattle, WA from June 8th through June 11th. This year's theme was Design Your Life... The Next Step, a symbol of Univera's objective to help Associates reach the next destination in their Univera journey.

Associates from all over the U.S. and Canada attended what many Associates proclaimed as the most beneficial Convention to date. The weekend was jam-packed with informative sessions, compelling speakers, recognition announcements and exciting launches of new products, tools and specials to help Associates take their next step to business success.

The Convention kicked off with a Diamond Club Hawaiian themed party, where everyone was greeted in proper Hawaiian style with flowered leis. Everyone dressed in their best Hawaiian shirts and grass skirts, and Associates even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proper hula dancing by the Hokulani Polynesian Dancers, a professional dance group based out of Seattle.

Then it was on to the first official day of Convention, where attendees were greeted by the Three Amigos, aka Stuart Ochiltree, Stephen Cherniske and Bill Lee, as they had just come off the final leg of the Design Your Life Ocean to Ocean Tour. Dressed in sombreros and ponchos, they took to the stage and performed their final number together, as Stuart Ochiltree then passed the reigns over to his successor, Univera's new President Randy Bancino.

Throughout the Convention sessions, some of the nation's top speakers in the field of leadership shared their wisdom and strategies for creating a strong business and leading others to do the same. Brian Biro, considered



유니베라의 신입 사장인 랜디 반시노가 연설하고 있다.
Randy Bancino addresses the crowd as the new President of Univera

게 만든 전략과 지혜를 전수했다. 미국의 획기적인 코치로 알려진 브라이언 비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굴 수 있게 내면에 숨어 있는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스티브 파버는 익스트림 리더십(Extreme Leadership)의 회장인데, 미국의 탑 비즈니스 리더들의 경험이 담긴 실화를 신선하여 프레젠테이션하여 설득력이 있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신제품 발표가 이어졌다. 유니베라의 새로운 마케팅 디렉터인 자넷 테레스는, 바다 위시와 바다 스크럽, 바다 로션, 핸드 크림, 풋 크림, 샴푸, 컨디셔너로 구성된 힐탑가든의 목욕용품 라인을 소개했다. 이는 유니베라 최초의 목욕용품 라인으로서 베이비 알로에로 만든 최초의 제품이다. 이와 함께 어소시에이트들이 새로운 제품 라인을 기존 비즈니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랄프 베이츠와 앰론 베벨스 윌슨은 마톨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 개월 내 있을 변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유니베라의 새로운 엑스트라(Xtra®) 홍보용 비디오에 담겨 소개되었다. 이 비디오는 어소시에이트들이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타민 앤젤스(Vitamin Angels)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하워드 쉬퍼가 유니베라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비타민 앤젤과 유니베라 서브 퍼스트 캠페인이 파트너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니베라의 어소시에이트인 코니 래즈는 2011년 4월 그녀의 동료인 존 라코네스와 사샤 베레진과 함께 니카라과로 생애 처음 서브 퍼스트(Serve First)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America's Breakthrough Coach, helped people find their inner strength that they were then able to channel by literally breaking boards with their bare hands. Steve Farber, president of Extreme Leadership, delivered a compelling and eye-opening presentation that included actual accounts of the experiences of America's top business leaders.

Next came the exciting announcements and product launches! Janet Therese, Univera's new Director of Marketing, announced the launch of the Hilltop Gardens Bath and Body Care line, which includes body wash, body scrub, body lotion, hand cream, foot cream, shampoo and conditioner; Univera's first bath and body care line and the first ever made with baby Aloe. The launch also included helpful information for Associates to integrate this line into their existing business.

Ralph Beitz and Amron Bevels-Wilson announced impending changes to the Matol Diet program and gave everyone a little "taste" of what to expect in the coming months.

Finally, all attendees were introduced to Univera's new Xtra® promotional video. This professional production was created for Associates to use as an effective sales tool with customers and prospects.

Touching on Univera's Purpose, Howard Schiffer, President and Founder of Vitamin Angels, delivered a report on the amount of lives that have been saved around the world due to the partnership between Vitamin Angels and Univera Serve First. Univera Associate Connie Ladds also took to the stage to share her story about her once-in-a-lifetime Serve First trip to Nicaragua in April 2011 with fellow Associates Jon Ragonese and Sasha Veregin. This life-changing experience allowed them to not only witness, but to also



③ 유니베라의 어소시에이트들이 컨벤션에서 구매한 비타민 A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기금은 유니베라 서브 퍼스트 캠페인 파트너인 비타민 앤젤스로 직접 전달된다. 비타민 앤젤스는 필수 미량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전세계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비영리조직이다. Univera Associates show the Vitamin A supplements they purchased at Convention. All money raised went directly to Univera Serve First partner Vitamin Angels, a 501c3 charitable organization dedicated to reducing child mortality worldwide with essential micronutrients. ④ 어소시에이트들이 유니베라 컨벤션 2011에서 갈라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다. Associates dance the night away during the Gala Celebration at Design Your Life...The Next Step: Univera Convention 2011

들려주었다. 인생을 뒤바꾼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니카라과의 극빈층의 실상을 목격하고 필수 비타민으로 이들이 건강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다.

토요일 저녁 시상식에서는 유니베라에서 가장 눈부신 업적을 이룬 인물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다이아몬드인 글렌 로어와 에메랄드인 사라 스파이서는 랍 칼닛스키 어워드를 수상했고, 다이아몬드인 앙드레 베다와 블루 다이아몬드인 론 앤 쟈 보이아노브스키는 올해의 어소시에이트상을 수상했다. 블루 다이아몬드인 해리스 윌리엄스에게는 유니베라와 그의 팀에 쏟은 그의 헌신에 대해 영예의 이연호 상이 주어졌다.

끝으로 이병훈 총괄사장의 기조 연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유니베라 최고경영인으로 취임한 후 유니베라에서 일어난 변화와 핵심 미션, 그리고 2020년까지 업계 톱 10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 설명했다.

글 | 킴벌리 수어크 카피라이터 | 유니베라 미국

assist with vital vitamin supplementation to some of the poorest residents in Nicaragua.

During the Saturday evening Awards Ceremony, Univera's brightest and best were recognized for their outstanding achievements. Diamond Glen Lore and Emerald Sara Spicer received the Rob Kalnitsky Award, Diamond Andre Bedard and Blue Diamonds Ron and Jan Boyanovsky received the Associate of the Year Award, and Blue Diamond Harris Williams was awarded the prestigious Yunho Lee Award for his dedication to Univera and his Team.

Finally, the evening closed with a keynote address by ECONET Chairman and Univera CEO Bill Lee, who shared his thoughts about the state of the company since he became CEO, and how by defining Univera's core mission, the company is on track to reach the top 10 in the industry by 2020.

By Kimberly Suwak Copywriter | Univera USA

컨벤션 2011에 대해 회원들이 남긴 말말말.

“행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훌륭히 잘 치러진 행사.”
 “우리 리더팀의 성실함, 열정, 헌신을 사랑한다.”
 “이제는 정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유니베라는 벌써 컨벤션 2012를 기다리고 있다.

Here is what some Associates had to say about Convention 2011.

“Convention just keeps getting better and better”
 “Great job, well executed, professional.”
 “Loved the sincerity, heart and commitment of our leadership team.”
 “I am now able to take the next step.”
 Univera is already looking forward to Convention 2012 in Seattle, WA.



자연 치유력, 힐탑 힐링 가든

Construction of Healing Gardens at Hilltop Underway

알로에 기념 정원 Memorial Aloe Garden

“알로에의 치유력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 치유력에 초점을 맞춘 힐링 가든 개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힐탑 힐링 가든은 도시의 불빛과 소음, 열기로부터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약초를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 치유력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진할 것이다.”

“With the healing power of aloe as the basis, the concept of a garden that focuses the healing power of nature through the stimulation of the senses, the calming of the psyche and the use of medicinal plants has taken root.

Far from the lights, sounds and energy of the city this healing garden will reach out to embrace the diversity that defines its setting.”

힐탑가든의 힐링 가든이 개념 정립에 이어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정원들을 힐링 가든으로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마스터 플랜 개발을 시작으로 2년 전 개시되었던 계획이 공사에 들어가 이제 10월 말이면 준공 예정이다.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이월드 하우스(Ewald House)는 방문객 안내소로 사용할 것이다. 그 밖에 치유 정원

The Healing Gardens at Hilltop are well on their way from concept to reality. A process that started two years ag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ster plan that would transform and expand the existing gardens into healing gardens is now in the brick and mortar stage. The schedule calls for completion by the end of October.

Several new elements are now in progress. The new elements include



공사중인 치유 정원 Healing Garden is now under construction



어린이 정원 Children's Garden

(Healing Garden)과 오감 정원(Sensory Garden), 어린이 정원 (Children's Garden), 알로에 기념 정원(Memorial Aloe Garden) 등을 새로 조성하고 있다.

이월드 하우스는 힐탑가든의 최초 건립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40년대 농가 스타일로 지어진 터라 초기 알로에 농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월드 하우스 공사는 현재 70% 정도 진행되었다. 앞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선물 가게의 외양을 꾸미고 회의실과 멀티미디어 센터 등을 갖출 것이다.

치유 정원은 힐탑의 새로운 대표 모습이 될 것이다. 각종 약초들을 가득 심고 연못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원은 사색과 물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다. 현재 공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린이 정원은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옛날 놀이기구, 개울과 연못, 언덕, 미로, 이야기 나무와 체험 학습용 밭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어린이 정원은 새로 들어서는 정원 중 제일 크다. 현재 65% 완성된 상태이다.

또 다른 두 개의 정원이 조성 중이다. 알로에 기념 정원의 기본 설계가 끝났는데, 최상의 알로에 품종들을 수집하여 알로에의 본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200여종의 알로에가 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중이다. 이월드 하우스를 완공할 때쯤이면, 걷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유기농 농장으로 둘러싸인 힐링 가든이 완공되면 우리 에코넷의 철학을 잘 나타내는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힐링 가든은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정원을 보지 못했던 지역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에코넷의 새 식구가 될 힐링 가든을 다 함께 반기기를 희망한다.

글 | 폴 슌톤 조경매니저 | 힐탑가든

Ewald House that will act as our interim visitor's center. New gardens include the Healing Garden, the Sensory Garden, a Children's Garden and our Memorial Aloe Garden.

Ewald House, named for the original owners of Hilltop Gardens is being built in the style of a 1940's farm house. It will evoke the early days of aloe farming on our site. Ewald House construction is just under 70% complete. Interior work and outfitting the gift shop, conference room, and multimedia center are the main elements left to be worked on.

The Healing Garden is a new feature under construction at Hilltop. It will be filled with medicinal plants and will feature a reflecting pool. This garden space will promote contemplation and centering. At 50% complete it is starting to show its shape and feel.

The Children's Garden will provide fun for children of all ages. It is designed with interactive elements, good old fashioned play things, a stream and pond, a hill, a maze, a story tree and an educational planting area. The Children's Garden, the largest of the new garden spaces is presently 65% complete.

Two other garden spaces are just getting under way. The Memorial Aloe Garden is being laid out and will be home to our premier collection of the Aloe family. 200 species of aloe are on their way to us from South Africa for that garden. The Sensory walk, a touch, smell and feel type garden will be started after the Ewald House construction is a bit more complete.

At completion this healing garden surrounded by our organic farm will be a marvelous expression of our company's philosophy. It will become a premier attraction in an area that has not seen this type of development. We hope that all of you are as excited as we are about this new component of the ECONET family.

By Paul Thornton Garden Manager | Hilltop Gardens Inc.

자신의 운명을 찾아라



①
②

① 2011년 이연호 상을 수상하고 나서 Yunho Lee award recipient speech 2011
② 콜로라도 골든에 있는 나의 농장 근처 클리어 크릭(Clear Creek)에서, 아들과 강아지 딜런(Dillon) My son and dog Dillon at Clear Creek near my Ranch in Golden CO

Finding Your Destiny Brings Peace of Mind

해리스 윌리엄스(Harris Williams)는 살아오는 내내 재미와 자유, 질 높은 삶을 추구해왔다. 남서부 플로리다의 관광 및 은퇴자 마을에서 자란 그는 근심 걱정이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사람들로 둘러 쌓인 삶을 살았다.

16살이 되기 전, 그는 이미 여행과 낚시 안내인 사업을 시작했고 곧바로 플로리다 최연소 선장이자 피트니스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보트 타기, 낚시, 스쿠버 다이빙, 운동 등으로 여가를 보내다가 어떻게 하면 그의 이러한 열정을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그가 좋아하는 값비싼 수상 스포츠와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해리스가 얻은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낚시 안내인이나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일하면서 만난 부유한 고객들과 대화에서 얻은 것이다. “제가 그들에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들은 언제나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건강을 좀더 잘 챙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죠.”

사라소타(Sarasota)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리스는 2년제 전문대학에서 1년을 보냈다. 그는 대학에서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직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4년 이상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9살이 되던 해 그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그만두었다. 선장이 되어 그는 플로리다에서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까지 배를 몰고 다녔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18세의 청년 두 명이 그의 피트니스 센터를 매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끝내 그는 버티지 못 하고 그들의 프레젠테이션

All of his life Harris Williams has been motivated by fun, freedom and living a high quality balanced life. Growing up in a southwest Florida tourist and retirement community, he was surrounded by people in search of a more carefree lifestyle.

Before he was 16, Harris already started his own fishing guide/tour business and soon after that became one of the youngest licensed boat captains and personal fitness trainers in the state of Florida. Harris explains how he spent so much of his free time boating, fishing, scuba diving and working out, that he had to find ways to turn his passions into profit, so he could afford all of his expensive water sports and activities he loved to do.

One of the most important life lessons Harris learned, was through conversations with his wealthy clients who had hired him as a fishing guide or a fitness trainer... “When I would ask them what they would have done differently or what really mattered in life, they would almost always respond with a similar answer of wishing they had taken better care of their health, spent more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is life-changing lesson has guided him throughout his adult life, affecting every major decision he’s ever made. After graduating from Sarasota High School, Harris spent a year at junior college. He enjoyed the social part and all of the participant sports of college. The one big block that was stopping him was he could not grasp the idea of spending another 4-plus years to receive a degree so he could get a good job and work for someone else. So at 19, Harris dropped out of his formal education and resumed his role as a boat captain, running boats from Florida to the Bahamas and Virgin Islands. Several years later another major turning point in his life happened when two 18 year old guys just out of high school, would come by his fitness center weekly to invite me to look at a network marketing company they were involved with. He finally gave in and went to one of their presentations and He was so impressed that you could build a business

테이션을 보러 갔다. 그는 직원도 재고도 없이 자택에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낚시하는 법, 사업을 시작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더욱이 수입과 라이프스타일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두 젊은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끈기와 열정이 변화를 만들었죠. 작은 은퇴자 마을 출신으로 공식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세 명이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의 무한한 잠재력 덕분에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거의 13년의 세월이 흘러 유니베라에 정착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제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유니베라에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콘적인 이병훈 총괄사장, 스투어트 오킬트리, 스티븐 체네스키가 보여주는 리더십, 글로벌 자원, 눈부신 과학, 인생을 바꾸는 제품, 어느 누구라도 총체적인 웰니스(Total Wellness)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함해서 말이죠.”

글 | 해리스 윌리엄스 블루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 | 콜로라도주 덴버

마우이에서 본 행사 전에 열린 다이아몬드 클럽 행사, 이병훈 총괄사장, 스투어트 오킬트리 부회장, 성한웅 사장, 그리고 나. Bill Lee, Stuart Ochiltree, HY Sung and I in Maui this past Diamond club.



from home on a global level, with no employee's, no inventory and get paid very well to help other's learn how to fish for themselves/build a business and there were no limits to the income and lifestyle potential. "I am so thankful to those two young guys, there persistence and passion is what made the difference and to think that the three of us with no formal education from a small retirement area, would all become financially free because of the unlimited potential of relationship marketing."

Harris spent the next 15 years building his business around the world and became one of the youngest and top income earners in the relationship marketing industry. Even with all the success he had achieved, he had still not found what he called the perfect lifestyle business, that would truly offer someone total wellness for lifetime, which Harris equates to being able to build a life long business that would promote health, wealth and purpose and also would be positioned in front of the next trillion dollar industry that just happened to be in the Health and Wellness movement.

Almost 13 years later, the search was over when I found my home with Univera "Univera had everything that I was looking for, iconic visionary leadership (with Bill, Stuart and Stephen), global resources, brilliant science, life altering products and proven business system that can help anyone design their lives around Total Wellness."

Today thanks to his Univera business, Harris and his family enjoy dual residences, living on his mountain ranch/retreat in the majestic Colorado Rockies with his amazing 11 year old son (Harris III), their dog Dillon and King the cat. The rest of the year they enjoy spending time at his beach house on the sandy white beaches of Siesta Key Florida, just across the inter-coastal waterway near his Mom, dad and brother Scott who are all involved in Univera as well.

"Someone once said that the Network Marketing Industry is more like a self-development program with a compensation plan on the back end, so that you can measure how much you have grown and how many people you have helped." This is truly how I feel about all the friends I have in Univera who have helped me so much in becoming a better friend, leader, father and person! Harris is the 2011 recipient of the Univera's prestigious Yunho Lee award. Named after our beloved founder, Yunho Lee, this award exemplifies the characteristics of Servant Leadership-commitment, loyalty, personal sacrifice and excellence in character. "I was in literal shock and totally surprised to receive the most prestigious award in Univera and I feel very humbled and honored and deep heart-felt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is award at my highest and best for each associate in Univera."

By Harris Williams | Blue Diamond Associate | Denver, CO

기타영양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From Other Nutritional Food to Health Functional Food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표준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태동한 초기부터 건실한 산업표준과 제도를 제공해 새 산업의 초석을 놓고 나아가갈 길을 제시한 업계의 리더였다.

선진제국을 시작으로 인간이 영양과잉의 시대로 접어들고 의료 체계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질병 패턴도 만성생활습관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급성·감염성 질환에 효과를 보이던 질병 중심 관리체계(Medical Care System)에 더하여 건강 관리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즉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태동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기타영양식품으로 수용되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종류 중 가장 끝에 기타 분류군(분류가 안 되는 새로운 군)으로 시작된 것이 1988년경이다. 때맞춰 고 이연호 회장님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건강식품협회가 임의단체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1990년 남양알로에의 지원과 협회의 노력으로 기타영양식품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새로운 식품군을 창설되고 식품위생법에 그 대상군의 명칭과 정의가 설정되었다. 남양알로에가 협회의 활동에 인적·물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까닭은 새로운 산업의 합리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기초를 다지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이며 산업의 리더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 산업의 발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업 중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영리에 치중하여 본분을 벗어나는 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명칭과 정의는 있으나 기능성

Development of new industry requires appropriate industry standard and system. Our company, which has provided sound industry standard and system from the beginning stag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has been the leader of this industry.

In this era of over-nutrition and advanced medical system,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d and disease patterns changed to life habit disease and senile disease. Accordingly, a need for Health Care system centering on health management and focusing on quality of life is recognized in addition to the Medical Care System which was effective for acute disease or infectious disease in the past. Furthermore, new industry centering on such system,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had its beginning.

Health functional food with this background was categorized as other nutritional food at first in Korea. In 1988, health functional food was categorized as "other category (No category was given) out of food categories under Food Sanitation Act. At that time, the Health Food Association chaired by the late founder Yunho Lee was founded as a voluntary association, leading advancement of new industry.

Thanks to support of Namyang Aloe and efforts of the Association, the category was changed from other nutritional food to new food category (Dietary supplement), the name and definition was stipulated in Food Sanitation Act in 1990. The reason why Namyang Aloe gave unqualified personnel and physical support to the Association was that Namyang judged it was the company's contribution to society and role as an industry leader to establish reasonable system and lay the groundwork for new industry.

However, development of new industry was not entirely smooth, as there are some companies which play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ut some others which only pursue their profits. Even though there were name and definition, there was no scientific system that assesses efficacy, safety, and stability of food,



(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이 일반 식품의 위생 관점에서의 품질관리만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기능·안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물질의 변화관리, 즉 안정성, 유통기한(유효기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심지어는 양품과 불량품의 구별이 어렵고 험잡품들이 끼어들 소지가 있었다. 허위·과대표시광고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건강보조식품산업에 대한 불신이 산업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과학적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산업 방향임을 확인한 이병훈 총괄사장은 1997년경 과학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한 건강기능식품법을 업계에 제안하였다. 식품에서 분리된 독립법으로, 의약품과 일반식품과도 분리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기능식품협회로 명칭이 바뀐 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입법 관련자들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설득 과정이 있었고, 마침내 2004년 제안법령이 제정·공포·시행되었다. 이제 우리 산업은 전통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용식물·천연물 등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제도로써 발전해야 한다.

글 | 조태형 COO(Chief Operating Officer) | 에코넷

there was weak point detected in change management such as safety and effective life management. Furthermore, it was hard to tell standard products from non-standard products, and there was possibility of existence of deceptive product. Also, the issue of continued false and puffery advertisement increased disbelief toward health food industry, becoming an obstacle to advancement of this industry.

Chairman & CEO Bill Lee, who thought that trust-building would be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of this industry to take, proposed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ith scientific assessment system in 1997. Thereby, the Act became an independent act from Food Act, and this industry become high value-added industry which is separated from medical products and general food. Led by the association which renamed to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later, there were a lot of discussion among academic circles, consumer organizations, and related parties of legislation, and finally in 2004, the act was enacted, announced, and enforced. Now is the time for this industry to grow into the health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health of the entire population by utilizing medical plants and natural products based on our know-how and experience.

By Taehyeong Jo COO(Chief Operating Officer) | EC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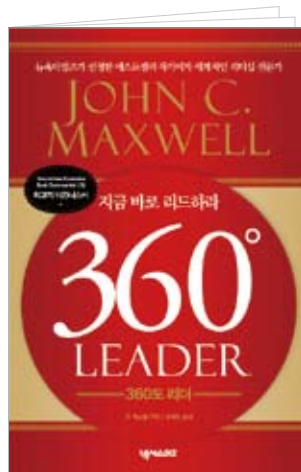
에코넷 북클럽

사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독서해야 한다.
독서하는 자는 극도로 활기차야 한다.
책은 손 안의 한 줄기 빛이어야 한다.
에즈라 파운드

ECONET Book Club

Properly, we should read for power.
Man reading should be man intensely alive.
The book should be a ball of light in one's hand.
Ezra Pound

영향력을 개발하라



제목 360도 리더: 지금 바로 리더하라
저자 존 맥스웰 | 강혜정 역 출판사 넥서스BIZ

The 360° Leader

Title The 360° Leader: Developing Your Influence
from Anywhere in the Organization
Author John C. Maxwell

2005년 존 맥스웰(John Maxwell)과 나는 북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연사로 초대되어 이동하는 중이었다. 우리는 민간 항공기에 함께 몸을 실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함께 나눈 화제 중 하나는 바로 당시 내가 가르치고 있던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탈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 서적에 대해 말했다. 그 책이 바로 『360도 리더(The 360° Leader)』라는 책이었다. 다음 주 존은 나에게 교정쇄를 보내 그의 편집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나는 대단히 영광스러웠다. 존의 서적은 칭찬할 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사실, 몇 년 후 전략 개발 및 인재 개발 전문 컨설팅 회사를 경영할 때 나는 『360도 리더』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바로 조직의 모든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영향력' 행사의 여

In 2005 both John Maxwell and I were scheduled as speakers at a large function, which just happened to be here in the Pacific Northwest. We were flying together on a private jet, so we got a chance to spend a little time and get to know each other. One of the topics that we discussed was the leadership program I was teaching at the time, and he told me about a new leadership book he had just finished. The book turned out to be a book titled The 360° Leader. The next week John sent me the galley sheets, and asked me to provide my feedback on what he had put together. Needless to say I felt highly honored, and had nothing but praise for John's work. As a matter of fact, a few years later when I was running a consulting firm that specialized in strategy development and people development, we used The 360° Leader as part of our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부와 관련되는데,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존의 책의 부제가 바로 '조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영향력을 개발하세요(Developing Your Influence from Anywhere in the Organization)'였다.

책은 리더십과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해 ❶ 지위에 대한 오해:

“톱 리더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오해 ❷ 목적지 도달에 대한 오해:

“톱 리더가 되고 나면, 리더십을 배울 것이다.”

오해 ❸ 영향력에 대한 오해:

“내가 톱 리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오해 ❹ 무경험에서 오는 오해:

“톱 리더가 되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 ❺ 자유에 대한 오해:

“톱 리더가 되면,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 ❻ 잠재력에 대한 오해:

“톱 리더가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칠 수 없다.”

오해 ❼ 전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까지 오를 수 없다면 리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패턴이 보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리드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는 지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들은 조직의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한다. 어떤 경우에서건 상사를 이끌고, 동료들을 이끌고, 팀을 이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리드(lead)'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영향력(influence)'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상향리더십

이 장은 아주 훌륭한 인용구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앞서 가고자 한다면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리드하는 것이 훨씬 좋다”이다. 상사를 리드하는 것(Leading up)이 세 가지 리더십 중 가장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리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드하는 것이 더 편한 상사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하고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

The basic premise of the book is that everyone in an organization is in a position to be a leader. After all, at the end of the day leadership is basically “influence,” and we all have the opportunity to influence others. As a matter of fact, the sub-title of John’s book is “Developing Your Influence from Anywhere in the Organization.”

The book starts out by dispelling a series of myths associated with leadership:

Myth #1 The Position Myth:

“I can’t lead if I am not at the top.”

Myth #2 The Destination Myth:

“When I get to the top, then I’ll learn to lead.”

Myth #3 The Influence Myth:

“If I were on top, then people would follow me.”

Myth #4 The Inexperience Myth:

“When I get to the top, I’ll be in control.”

Myth #5 The Freedom Myth:

“When I get to the top, I’ll no longer be limited.”

Myth #6 The Potential Myth:

“I can’t reach my potential if I’m not the top leader.”

Myth #7 The All-or-Nothing Myth:

“If I can’t get to the top, then I won’t try to lead.”

Do you see a pattern here? Many people believe you have to be in an authority position in order to lead when real leadership is based on influence, not authority. And real leaders learn that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t various times we all need to lead up (your boss), lead across (your peers), and lead down (your team). Again, when you hear “lead,” think “influence”.

Leading Up

This section of the book starts with a great quote: “If you want to get ahead, leading up is much better than kissing up.” Leading up is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of the three leadership directions, because often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leading don’t necessarily like to follow. It can require more subtlety and tact to lead a boss who is

람들은 그들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사를 리드하는 몇 가지 비결을 원칙과 이야기, 논점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스스로를 훌륭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라.
- 상사의 짐을 덜어주라.
-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하라.
-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라.
-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
- 상사의 시간을 뺏을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
-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라.
- 전천후 플레이어가 되라.
- 나날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

수평리더십

동료를 리드하는 것(leading across)은 리더십 중에서 가장 소홀히 다룰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그들의 상사나 부하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동료와의 관계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동료들이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동료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전체 조직을 돕는 것이다. 동료를 리드하기 위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 리더십 순환고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완성하라.
- 동료 리더의 성공을 경쟁보다 우선시하라.
- 친구가 되라.
- 직장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라.
- 좋은 아이디어가 승리하게 하라.
- 완벽한 척 하지 마라.

하향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나 권력 혹은 세력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부분 리더들은 자신들의 팀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들은 그들이 권위로 좌우할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한다. 팀을 리드하기 위한 비결은 이렇다.

more comfortable leading. However, you can influence almost anyone by providing value to them. Tips for leading up include:

- Lead yourself exceptionally well
- Lighten your leader's load
- Be willing to do what others don't
- Do more than manage – lead!
- Invest in relational chemistry
- Be prepared every time you take your leader's time
- Know when to push and when to back off
- Become a go-to player
- Be better tomorrow than you are today

Each of these tips has a small chapter designated to it, with great principles, stories, and examples that illustrate the point.

Leading Across

Leading across is often one of the most neglected aspects of leadership. Many people intuitively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influence their boss and lead their followers, but then often ignore their peer relationships. You need to give your peers reasons to respect you before they will be influenced by you.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help them win. And, by helping them win, you are helping the entire organization. Tips for leading across:

- Understand, practice and complete the leadership loop
- “Complete” rather than compete
- Be a friend
- Avoid office politics
- Expand your circle
- Let the best ideas win
- Don't pretend you are perfect



- 통로를 천천히 걸어가라.
- 누구나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라.
- 팀원들을 개별적으로 발전시켜라.
- 저마다 잘하는 영역에 배치하라.
-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라.
- 비전을 전하라.
- 성과에 따라 보상하라.



『360° 리더』는 서번트 리더십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기술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리더십에 관한 흔한 미신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은 리더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기 전에는 리더십 책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모두는 리드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념을 가르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문 스포츠 팀이다. 하키, 야구, 농구팀에서는 팀 구성원 모두가 상황에 따라 리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에코넷 팀원 모두가 조직 전체를 위해 상황리더십, 수평리더십, 하향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글 | 랜디 반시노 사장 | 유니베라 미국

Leading Down

Again, real leadership comes from influence, not position, power, or leverage. And while leaders do have some degree of authority over their team, real leaders rely on influence even with those over whom they have authority. Tips for leading down:

- Walk slowly thru the halls
- See everyone as a “10”
- Develop each team member as a person
- Place people on their strength zones
- Model the behavior you desire
- Transfer the vision
- Reward the results

The 360° Leader is very much attuned with the concept of Servant Leadership,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manner in which they influence their team. As reflected in the common myths about leadership, many people do not start studying leadership books until they are officially in a leadership position. This is very unfortunate since real leadership is not position-oriented, and we are all called upon to lead. Interestingly, one of the areas where we used to teach these concepts was to professional sports teams. On a hockey, baseball, or basketball team every member of the team needs to be ready to lea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Our business is no different. Every member of the ECONET team needs to lead up, lead across, and lead down for the good of the whole organization.

By Randy Bancino President | Univera USA

〈에코넷 북클럽〉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만듭니다. 긴 글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목만을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에코넷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책을 편집실로 알려주세요.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ECONET Book Club〉 is waiting for your recommendation. You do not have to write a long article.

You can just inform us of a title of a book. What would you like to recommend right now?

Please tell us about your interesting reading experience, and w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fellow ECONETians.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뜻이 맞는 사람끼리 삼복 중에 냇물이나 강가에서 헤엄도 치고 그물을 쳐 놓고 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를 솥에 걸어 놓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는 천렵. 농가월령가의 한 소절이 네이처텍에서 해마다 하는 천렵 행사와 맞아 떨어진다.

네이처텍 생산기술팀은 옛 노래의 한 대목처럼 해마다 에코네시안들과 함께 천렵행사를 벌인다. 처음 천렵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함께 모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소소한 자리였는데, 20년 넘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네이처텍의 작은 전통이 되었다. 원래 네이처텍 천렵의 취지는 여름이 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원기를 보충시키고 다시 일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On a hot day in summer, our ancestors had gone to the river to enjoy swimming, fishing, and cooking fish stew; that event was called "Cheonryeop". Naturetech's people also have a same event, Cheonryeop annually.

Production Engineering Team of Naturetech hosts the event every year for ECONETians. At the first time, it was a small gathering at which ECONETians gathered and ate food, but as it has maintained for 20 years, this event has become a traditional event of Naturetech. This event was initially purposed to cheer up and encourage employees working at a field during hot summer. Naturetech has made efforts to make the most enjoyable event in line with the initial purpose of this event.

청풍명월(靑風明月)의 고장 진천 네이처텍의 천렵행사

Naturetech's Summer Event



올해는 7월 15일에 네이처텍 전 직원이 땀 흘려 일하고 퇴근 후, 회사 근처 매박골 원두막에 모였다. 특별히 이병훈 총괄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사의 임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보신탕과 통돼지 바비큐, 오리 바비큐 등을 먹으며 자식들 이야기며 이런저런 정담으로 업무적으로 데면데면했던 직원들끼리도 말을 섞고 친해지는 자리였다. 한국의 보신탕을 외국에서는 혐오음식으로 여기기도 한다던데, 이번에 참석한 유니젠의 애드 캐논(Ed Cannon) 사장님과 치 지아(Qi Jia) 박사님이 보신탕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모습은 천렵을 준비한 사람에겐 참 고마운 일이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은 힘든 일들을 잠시 잊고 서로가 하나되어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어 나에게 참 행복한 하루이다. 무더운 날씨에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런 우리의 작은 노력이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의 일상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앞으로도 무더운 여름이 해마다 우리를 찾아 올 것이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라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더 더워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온다. 다가올 날들은 더 땀 흘릴 일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에코넷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나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만든 자연의 혜택이 인류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먼 길 찾아와주신 에코네시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 | 천창식 차장 | 식품생산기술팀 | 네이처텍

On July 15 this year, all the employees of Naturetech gathered at a hut of Maebakgol located nearby. Chairman & CEO Bill Lee, executives and employees from Univera and Unigen came to grace this event with their presence. Participants enjoyed many kinds of soup, pork barbecue, and duck barbecue and had time to share friendly talk.

After the event was over, I felt that something was lacking, especially food, but I felt so happy, as all the participants became unified and shared happiness. To care for each other's health and share healthy food in hot weather may be a little effort to mak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Hot summer will bother us every year, and the global warming may result in even hotter summer. We may have to sweat more, but I hope all the ECONET families stay healthy. Furthermore, I hope the best of nature can be brought to humankind as well.

I would like to deliver thanks to ECONETians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By Changsik Chun Deputy General Manager |
Food Production Technology Team | Naturetech

“앞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보세. 해 길고 잔풍(殘風)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水丹花)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촉고(數罟)를 둘러치고 은린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 반석(磐石)에 노구 걸고 솟구쳐 끓여내니
팔진미(八珍味) 오후청(五候鯖)을 이 맛과 바꿀소냐.”

-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Above and Beyond Award Recognition Program

에코넷 웨스트는 『에코넷웨이』 35호에서 알린 대로 서번트 리더십 문화를 진작하기 위해 '초과봉사상(Above and Beyond Award)'을 만들어 시상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지난 5-6월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발표한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멜리사 챌커(Melissa Chalker), 데이브 프레데릭(Dave Frederick), 론 그녍(Ron Gnyp), 상 신(Sang Shin), 타오 홍(Thao Hong)이 그들이다.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all of the recipients of the Above and Beyond Award. Thank you to all who submitted recommendations for employees that exemplify servant-first deeds! It is truly an inspiration to read and share all the amazing accomplishments of our talented employees. In the previous ECONET Way, the "Above and Beyond Award" program details were shared. Although, we need to be focused on servant-first acts on a daily basis, we had a special five week program for Canadian and US employees. During this period, employees had the opportunity to submit to HR employees who exemplified servant-first acts. Each week, HR randomly selected a winner and he/she was awarded a \$25 gift card. The following employees were the program weekly winners:



Melissa Chalker

"I want to nominate our temporary, Melissa Chalker for the "Above and Beyond Award" program. Due to an unfortunate error at the company that ships our mice we received a shipment of mice that was in dreadful condition. I won't disgust you with the details but Melissa went above and beyond to take care of the mice and the problem right away. She reported the issue to me immediately and got extra help to get them food and water as quickly as possible. The problem created three times as much cleaning as normal but Melissa has not complained once. She did not complain about any of the less than pleasant tasks that we had to do and her compassion for the animals was evident. She really deserves recognition for this and I'm keeping my fingers crossed that she wins the drawing!"

-Mandee Pantier, Research Associate | Unigen



Dave Frederick

"I nominate Dave Frederick in accounting. Dave has been extremely responsive in getting me what I need to help me get integrated into my job. For example, I asked for CAM charges for both the Lacey and Seattle locations. He provided them to me the same day. He also, without request, provided contact information and year prior numbers for comparison. He has been very patient with all my questions. I appreciate his help and willingness to share data quickly to help me get up to speed in my role quickly. He also went the extra mile to ensure that I received my first live paycheck on time. He was aware of my schedule and coordinated with me to be sure that I would receive it. The hands on, personal, and proactive approach was very genuine and thoughtful."

-Carrie Cary, Facilities Manager | ECONET



Ron Gnyp

"I would like to nominate Ron Gnyp for the "Above and Beyond Award". Ron is the prime example of being an "everything man" to our family of companies. Ron always helps any person or team with any request with a smile on his face. He goes above and beyond daily to make sure that our facility is running properly and everyone in each department remains happy. Whether it is a water spill, a leaking roof, a light that needs changed, a car that needs cleaned or repaired, a slippery floor, or if a room is too cold or hot... Ron is there to assist everyone at all times with a smile and a go-getter-attitude! Tara and I recently moved cubicles and Ron ensured that the cubicles were empty prior to moving in. He moved our filing cabinets and made sure that the two of us were happy and comfortable in our new "home". I ran into Ron and KS Yoon outside and Ron was helping KS get someone to come onsite to fix a crack in KS's windshield. No task is ever too big or small for Ron. It is his prerogative to make sure that everyone is happy within out ECONET family of companies. I am proud to work with Ron and ever so grateful to have such a servant leader as a part of our HR and Facilities team."

-Sarah Edison, HR Generalist | ECONET




'초과 봉사상' 수상자들 Above and Beyond Award Winners; Dave Frederick, Sang Shin, Thao Hong, Melissa Chalker and Ron Gnypl.(from left)

Winner
Week #

4

Sang Shin

"I would like to recommend Sang Shin as an employee who went Above and Beyond his duty. Sang had been with the company for less than one week as ... my new boss in 2004. One night he realized it was late in the day and I was sitting there putting checks into envelopes because back then there was only the two of us. He had a ton of things he needed to do. More than I could imagine, but all of a sudden I turned around and saw my new and extremely busy boss, sitting in my cube stuffing checks into envelopes. I told him he did not need to do that...and thanked him but he said "No Carolyn, we are in this together". In that small act of servant leadership...this man won both my respect and my friendship. In all these years, he has always been a leader I would love to emulate (but fail miserably trying). His people have always been "his team" and he is there for us when we need guidance, direction, assistance or just someone to talk to. He is the rock this department runs on and would be lost without. Every major accomplishment of this department has come as a result of his servant leadership and team building skills."

-Carolyn Doolan, Senior Accountant | Unigen 

"I would also like to recommend Sang Shin as an employee who went Above and Beyond his duty. He is a kind of person who always works Above and beyond his tasks. He takes on responsibility beyond what is written in his list of responsibilities. As a manager, he keeps the team cohesive and has pushed the group to their capabilities to perform well to their capacities. No matter how busy he is, he always has time to listen to each and everyone and sees to it that things are in order and everything is on schedule. As a subordinate to all of his Superiors, he keeps on taking tasks and making all things possible. He works beyond working hours and not only accounting and financial, but becomes an important partner in projects that helps the management in their important decisions. To all of Unigen employees, he is not just an Accounting Manager that you can approach for financial or accounting advice; he is also a friend you can count on. For all this, I recommend Sang Shin as a Servant Leader who goes Above and Beyond his duties."

-Maria Lopez, Staff Accountant | Unigen 

Winner
Week #

5

Thao Hong

"It is bit later but it is overdue for recommending Thao Hong, QC Chemist of Unigen for the Award. During the weeks of later April and early May, Thao Hong was the only chemist in the QC lab. However, she was able to perform all the tests for releasing our products (Nivitol, Univestin...) and the samples from vendors and R & D projects. The work load was big that requires more than two persons in a normal situation. Thao delivered the results without complaint but with grace, high quality and in time."

-Wenwen Ma, VP of Quality Assurance & Quality Control | Unigen 

"As Dr. Wenwen Ma pointed out, she completed her job in an extraordinary manner for more than a couple of weeks in late March as the only chemist in the QC lab, while two other chemists including myself were gone. During that time, her performance greatly helped our QC operation without any delay or mistakes. She not only completed all of the demanding workloads, but also delivered the projects and tests with remarkabl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When I came back to the lab, all she told me was how enjoyable her job was and also how much she learned (with a great smile on her face, even though she looked awfully tired). The most important thing I want to emphasize about her is that this is not merely happening for a few weeks. She has been this kind of hard worker, a good team player, and a great servant leader on a daily basis. She motivates me as well as others. I am not aware of how the winner gets chosen each week, but it appears to be there are many great candidates like her, which is wonderful for our organization. If she can't be selected again (hope not!), I would like to strongly request that you at least announce her being a great servant leader everyday."

-Mijeong Jeong, Scientist II | Unigen 

The Above and Beyond Program was a great success! We received many great employee servant-first act recommendations. I am very proud to be at this company where servant leadership is modeled, encouraged, supported, and rewarded.

By Sarah Edison Receptionist & HR Support | ECONET West

휴가는 가족을 찾는 것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차드 가든 The beautiful Butchart Gardens in Victoria, BC

A Visit to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될 때쯤이면, 휴가라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손자·손녀를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저와 제 아내가 한 일입니다. 저희는 지난 5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던 알라버마 주 터스컬루사(Tuscaloosa)에 있는 제 아들 손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 한 주를 보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 너비 1마일 길이 6마일이 되는 지역이 초토화되었더군요. 도시의 약 10%가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터스컬루사 지역의 목사였기 때문에 집과 일자리를 잃은 피해주민들을 돕는 데 팔 걷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장비 기계를 동원하여 수습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울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피해 지역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서는 길에 저희도 함께 하였는데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골프를 치거나 바버 모터스포츠 파크(Baber Motorsports Park)에 가거나 볼링을 치거나 제일 어린 손주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 우울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알라버마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딸 바네사와 그녀의 가족이 있는 워싱턴 주로 가기 위해 서부로 향했습니다. 바네사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40번째 생일날, 시애틀 공항으로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빅토리아로 향했습니다. 시애틀에서부터 우리는 워싱턴의 아

When you reach my age, vacation time usually means a visit to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that's exactly what my wife and I did this summer. We first spent a week with my son Shon and his family in Tuscaloosa, AL the site of one of the worst tornado's in American history, which happened in May. The tornado cut a swath approximately one mile wide by six miles long, destroying approximately 10% of the city. Our son is a minister in Tuscaloosa so he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aiding those who suffered damage to their homes and the loss of all their possessions. While we could not help with the cleanup efforts as it is currently all being done with heavy equipment our son was able to drive us through the area to see the massive extent of damage. It was truly shocking. It wasn't all grim though as we had time to play some golf, visit the Barber Motorsports Park, do some bowling and enjoy walking through the woods with my youngest grandson.

Following our time in Alabama, we traveled West to WA to visit our daughter Vanessa and family. Vanessa and her husband met us at the Seattle airport on her fortieth birthday and we headed to Victoria, BC.



멋진 정원에서 아내와 함께 My wife and I in the amazing gardens.



토네이도가 쓸고 간 집 These were once homes, now wiped out by the tornado.

나코테스까지 운전을 해서 벤쿠버 아일랜드로 가는 작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 다음 빅토리아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빅토리아에서 바네사의 생일을 축하하고 항구 마을을 거닐었으며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s)에 들렀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니까요. 만약 아직 가보지 않으셨다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에 이곳 여행을 올려주세요. 빅토리아에서 멋진 한 주를 보낸 후 우리는 워싱턴 야키마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명의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워싱턴 모세 호수(Moses Lake) 근처 농장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곳에서 폐허가 된 도시를 목격하고 다른 곳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족과 보낸 시간에 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과 신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글 | 밥 스미스 영업부장 | 알로Corp

From Seattle we drove to Anacortes, WA where we caught a ferry to Vancouver Island and then we drove into Victoria. We celebrated Vanessa's birthday in Victoria, walked through the Inner Harbor area, and drove along the scenic coast. From there we went to Butchart Gardens, which can only be described by saying this is what the Garden of Eden must have looked like. The gardens may be the most beautiful place I have ever seen. If you have never gone, add it to your bucket list! After our wonderful time in Victoria, we made our way to Yakima, WA, where we enjoyed time with our two granddaughters and just resting up. We did make one more day trip to visit some old friends who live on a farm near Moses Lake Washington and had a most delightful time.

While we witnessed devastation in one place and unbelievable beauty in another neither compare to the time just spent with family. We are just thankful that we could observe and enjoy God's creation with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By Bob Smith Western Sales Manager | Aloecorp

남양알로에 대리점의 시작

편집자 주 에코넷은 2010년과 201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기록물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여기저기 먼지를 걷어내고 기록을 들추어내자 까마득히 잊혀졌던 우리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이번 호부터 『에코넷웨이』는 이렇게 발굴한 기록물을 통해 에코넷의 역사를 더듬어 가겠다.

1984년 4월 5일 설립한 남양알로에농산의 초기 영업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봉고차에 제품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점포를 빌어 제품을 전시하고 알로에를 소개한 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보여주며 제품을 팔았다. 보부상처럼 전국을 누비던 영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대리점 개설이었다. 1985년 8월 남양알로에농산 전라북도 정주시(지사장 김춘애)가 개설하였다. 전망이 불확실한 건강식품 시장에서 선뜻 남양알로에농산의 제품을 선택한 용기 있는 동반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긴 대리점 지사장들이 모여 1985년 10월 12일 제1회 전국지사장회의가 포천에서 열렸다. 대리점 개설로 안정적인 판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 4월 춘천지사(지사장 김수훈)가 개설하였다. 이 전의 지사들이 겸업이었다면 춘천지사는 오로지 남양알로에농산 제품만을 파는 첫 번째 대리점이었다. 대리점이 개설하기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오로지 남양알로에농산 제품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의미 있는 대리점이 생긴 것이다. 그 후 대리점 개설이 잇따라 1986년 한 해에만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지사장 및 대리점장 임명식이 있었다. 오늘의 방문판매전문기업 유니베라, 나아가 에코넷을 만든 공로자들이다.

글 | 문선유 기획위원 | 인사팀 | 에코넷

The first Distributor of Namyang Aloe

Editor's note ECONET conducted archives management project for two times in 2010 and 2011. After arranging and reviving our records, our own history which had almost been forgotten was brought back. ECONETWAY will trace back history of ECONET from this issue.

At the early stage, sales condition of Namyang Aloe, which was established on April 5, 1984, was very poor. Namyang Aloe which had crisscrossed the entire country to sell products could leap forward through opening distributors. In August 1985, Jeongju Distributor (Head, Kim, Chun-ae) of Namyang Aloe, Jeollabukdo was opened. The distributors including Jeongju were brave companions who chose Namyang Aloe's products in uncertain health food market. Heads of these distributors gathered in Pocheon on October 12, 1985 to have the 1st National Distributors Meeting. And, Namyang Aloe could secure the stable market with distributors. Afterwards, in April 1986, Chuncheon Distributor (Head, Kim, Soo-heun) was opened, and it was the first distributor only handling Namyang Aloe products, though the former distributors sold the other products. It was meaningful in that it took less than 1 year for Namyang Aloe to have a distributor only dealing with Namyang Aloe products. Distributors were opened successively and there were 3 ceremonies to appoint Heads or Branch Heads of distributors in May, August, and November in 1986. Those were the contributors to make today's Univera and ECONET.

By Sunyu Moon Planning Director | HR Team | ECONET





성수 근린공원

성수동 본사 사옥 바로 옆에는 성수 근린공원이 있다.
 길지 않은 산책로와 농구코트가 있어 유니베라 임직원들이 시간을 보낸다.
 점심식사 후 간단히 산책을 하기도 하고,
 농구 코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구도 한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 사이의 작은 녹지인 이 공원은 유니베라에 산소를 공급하며 휴식공간이 되어준다.

민지희 대리 | 전략인사팀 | 유니베라 한국

Sungsu Neighborhood Park

There is Sungsu Neighborhood Park just in front of the head office building in Sungsudong.
 As there are a short trail and basketball court in this park, employees of Univera have spent their spare time.
 After lunch, they have time to enjoy stroll and basketball.

Jihe Min Assistant Manager | Strategy HR Team | Univera Korea

(에코넷 명소 사진전)은 단순한 관광 명소의 기념 사진이나 단체 사진이 아니라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의 사진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도 그곳에 에코넷 사람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에코네시안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 에코네시안들이 사색에 잠기는 공간, 회사 안과 밖에서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는 장소 등 여러 이야기를 담은 장소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세요. 『에코넷웨이』에 사진이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y favorite place of ECONET” is not just for group pictures or pictures of tourist attraction, but for places where memories of ECONETian is abound.

Picture of tourist location is also accepted only if the place held memories of ECONETians.

We are looking for places that have meanings for ECONETians, places where ECONETians stop and ponder, places where ECONETians gather and spend time together, whether the place is inside or outside of the company.

Send us photos of your favorite place with short explanation. For those whose photo is published in ECONETWAY, a small gift will be given.

에코넷 ECONET

2011년 에코넷 팀장 리더십 워크숍

2011 ECONET Team Head Leadership Workshop



에코넷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했다. 네이처텍, 유니베라, 유니젠, 에코넷의 팀장 총 4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팀장의 역할 재인식, 협력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구성원의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업무 코칭과 피드백 방법 습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네이처텍 성한용 사장은 공부하는 팀장(Reader(人文)), 통하는 팀장(Communicator), 실행하는 팀장(Executor), 희망을 주는 팀장(Motivator)이라는 네 가지 팀장의 모델을 에코넷 팀장의 역할과 책임으로 제시하였다. 2011년 연말에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ECONET held leadership workshop at Cheonan Sangnok Resort for two days and one night from July 22 to July 23. This workshop, participated by a total of 40 team heads of Naturetech, Univera, Unigen, and ECONET, had programs on the subject of re-recognition of roles of team heads, invigoration of communication for higher cooperation, desirable business coaching for higher spontaneity, and acquisition of feedback know-how, etc. Especially, Naturetech CEO HY Sung suggested four models of a team head of ECONET – reader, communicator, executor, and motivator. The 2nd workshop will be held at the end of 2011.

'에코넷 사람들의 좋은 말씀' 시상

Award of 'Good Saying of ECONETian'



에코넷은 9월 1일 '에코넷 사람들의 좋은 말씀' 공모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하였다. 유니젠의 황지혜 대리가 대상, 에코넷의 성봉해 대리, 네이처텍의 방지영 대리, 유니베라의 이재연 대리가 우수상을, 에코넷의 문길성 과장, 네이처텍의 조은성 사원, 최수정 사원, 박상근 사원, 유니베라의 신은주 부장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여간 자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주위 사람들의 격려, 충고, 혹은 옛 성현의 말씀, 격언, 잠언, 속담 등을 찾아 보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서 에코넷의 동료들과 나눔으로써 이해와 협력의 문화를 진작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에코넷 사람들의 좋은 말씀' 공모에는 에코넷 19명, 유니베라 28명, 네이처텍 27명, 유니젠 20명 등 총 94명이 응모하였다. 앞으로 에코넷은 이렇게 모은 글 중에서 좋은 글을 뽑아 책으로 묶어낼 예정이다.

On September 1, ECONET announced and awarded prize-winners for 'Good Saying of ECONETian.' Assistant manager of Unigen Jihye Hwang won grand-prix; assistant manager of ECONET Bonghae Sung, assistant manager of Naturetech Jiyong Bang, assistant manager of Univera Jaeyeon Lee won excellent award; manager of ECONET Gilsung Moon, employee of Naturetech Jonathan Jo, Sujung Choi, Sangkeun Park, and general manager of Univera Eunju Shin won the encouragement award. The 'Good Saying of ECONETian' award, which was purpose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y collecting and sharing good sayings such as encouragement, advice, maxim, golden saying, adage, and proverb, etc., received stories from a total of 94 participants – 19 from ECONET, 28 from Univera, 27 from Naturetech, and 20 from Unigen. ECONET will publish a book containing these good sayings.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정찬수 사장 입사 25주년 축하 기념식

Ceremony Marking the 25th Milestone Anniversary of the Univera President Chansoo Chung

8월 8일 전직원 미팅이 끝난 후, 유니베라 정찬수 사장 입사 25주년 축하 기념식이 있었다. 2011년 상반기 신입 사자들이 입사 25주년을 축하하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준비하여 정 사장과 모든 임직원들이 즐겁게 감상했다. 유니베라 임직원은 축하카드와 캐리커처 액자로 정 사장의 입사 25주년을 축하했다. 정 사장의 짝막한 소감을 끝으로 축하 기념식을 마쳤다. 기념식 후, 건강을 위하여 케이크 대신 준비한 떡을 모든 임직원들이 흥겹게 나누어 먹었다.

After the meeting of employees on August 8, there was a ceremony marking the 25th year of joining Univera of President Chansoo Chung. Members newly employed in the 1st half of 2011 prepared an interesting video to celebrate his 25th milestone anniversary, and all the employees and President Chung enjoyed it. Members of Univera celebrated this event with greeting cards and a caricature of him. The ceremony ended with President Chung's short message. After the ceremony, all the employees delightfully shared rice cake instead of cake for the sake of health.



꿈나무캠프

Camp for the Young

제26회 2011 하계 푸른꿈나무 캠프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및 갈매자연학교에서 열렸다. 2011년 7월말부터 8월 초까지 2주에 걸쳐 3박 4일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했다. UP 및 본사 임직원 자녀와 성애원 식구들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 아이들이 대상이었으며, 총 17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명랑운동회 및 장기자랑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자연과 문화 사랑 프로그램으로 화분 만들기와 그린디자인 및 캠프화이어 등을 수행했다. 셋째 날에는 곤충 박물관을 관람하고 물놀이를 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매 프로그램에 임하여 꿈나무캠프는 항상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The 26th Summer Camp for the Young in 2011 was held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nd Galmoi School for 4 days and 3 nights on two separate occasions from late July to early August. It targeted 4th to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out of children of UPs and employees of Univera, and Seongaewon members. A total of 170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camp. On the first day, sports meeting and talent show were held. On the second day, attendees participated in making flowerpots, green design, and campfire. On the third day, they visited insect museum, swam in the pool, and wrote letters to their parents. All the children participated in each program enthusiastically and enjoyed the camp delightfully.



유니젠 러시아 방문

Visiting Unigen Russia

올해 리더전진대회에서 '우수 UP상'을 수상한 UP(수석 지부장, 본부장 및 간부 UP)들이 수상 경품으로 8월 유니젠 러시아를 방문했다. 1차로 8월 3일부터 6일까지 대리점 사장들이, 2차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UP들이 크라스노 농장을 방문했다. 유니젠 러시아의 '위즈덤플레이스'가 완공된 후 처음으로 숙박했는데, 그 시설 및 분위기에 모든 UP들은 매우 만족해 했다. 첫째 날에는 블라디보스톡을 관광한 후 에코넷과 광복회가 힘을 합쳐





조성한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를 둘러보며 목념의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농장에 들러 황금을 심어 보기도 하고 채취도 해보고 ATV를 타고 농장 투어를 가졌다. 그날 저녁에는 유니젠 러시아를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Ps (Chief branch head, head of department, and executive UPs) who received 'Excellent UP Award' at the Leaders' Convention of Univera Korea in this year visited Unigen Russia as a prize in August. This visit made two times; in the 1st visit from Aug. 3rd to 6th, heads of distributors visited Kraskino farm and in the 2nd visit from Aug. 17th to 20th, UPs visited there. After completion of 'Wisdomplace' of Unigen Russia, it was the first accommodation, and all the UPs were quite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and surroundings of Wisdomplace. On the first day, they toured Vladivostok and visited the monument in memory of the 12 independence activists including the patriotic martyr Ahn, Joong-geun, which was established by ECONET and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Next day, they had time to plant and gather *Scutellaria baicalensis* and look around the farm with riding ATV. In the evening, they shared feelings to visit Unigen Russia and discussed the plan for the 2nd half of 2011.

2011년 모교방문단 1기 활동

2011 Alma Mater Visitors (1st term)



유니베라 하반기 공채를 홍보하기 위하여, 7월 22일과 25일, 26일, 3일에 걸쳐 유니베라는 총 5개 학교에 모교 방문단을 파견했다. 유니베라 직원들은 모교인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취업 관련 기관 및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니베라 하반기 공채를 알리고, 홍보 포스터와 모집 요강을 게시하였으며 홍보물과 제품을 전달하였다.

In an effort to publicize the 2nd half open recruitment of Univera, the alma mater visitors came to 5 universities for three days on July 22, 25, and 26. Employees of Univera visited relevant offices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their alma mater to publicize the 2nd half open recruitment, post PR posters and application guidelines, and deliver PR materials and promotion gifts.

유니베라 CCMS 교육

Univera CCMS Training



2011년 8월 8일, 유니베라 전직원 미팅이 끝난 후 SVC 필수이수교육과정인 CCMS관련 교육이 있었다. 유니베라 고객의 소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비스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교육은 CCMS사무국의 박정아 차장이 강의를 맡았다. 다양한 고객 접점상황(영업팀, 고객지원팀은 물론 유포가 고객을 만나는 상황)에서 유니베라와 네이처텍 등 CCMS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공감하는 자리였다. 특히 불만고객과의 상담 녹음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유니베라(UP)가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런 학습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채득할 수 있었다.

On August 8, 2011, all the employees of Univera had the CCMS training as the SVC training course. This training in the title of 'We are services,' was led by Deputy General Manager Jeongah Park of CCMS Office.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how employees participating in CCMS integration program should think and act under the various customer contact circumstances when Sales Division, Customer Service Team, and UPs meet customers. Especially, while listening to recorded customers' complaints, it was served as a chance to identify response of customers about products and services of Univera.

희귀 난치병 환아 쉼터의 가을맞이 대청소

August Big Cleaning Activity for the Asylum for Children Patients with Obsolete Diseases

유니베라는 2011년 8월 24일, 사회봉사활동으로 한국 희귀난치병 환아 쉼터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정찬수 사장과 영업기획팀, 전략인사팀, 고객지원팀 직원이 모여 환아 쉼터의 가을맞이 대청소를 했다. 정 사장은 '대청소의 정석'을 몸으로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보람과 재미를 심어주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여름 끝에 나타난 화사한 태양빛에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건조·소독하면서 마음의 때와 힘든 일, 어려운 상황들도 함께 털어냈다. 정 사장은 특히, 환아들과 산행을 함께 하면서 그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 August 24, 2011, Univera participated in cleaning activity for the asylum for children patients with obsolete diseases. President Chansoo Chung and all the members of Sales Planning Team, Strategy HR Team, Customer Service Team gathered to do cleanup the asylum for children patients. President Chung enthusiastically cleaned and set an example, making other employees feel rewarding. By drying and disinfecting mattress and bedding under sunlight, all the participants could forget difficulties and hardships. President Chung said that he could understand difficulties of parents of the children patients by climbing mountain with the patients and will keep supporting them, though the support may not be huge.



네이처텍 Naturetech

네이처텍 의약품 제조업 허가

Naturetech, Obtaining Approval for Manufacturing of Quasi-Drug

네이처텍은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득하였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식약청의 제조기준 및 시설 실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네이처텍의 제조기준 및 시설이 의약외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은 것이다. 네이처텍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통해 2010년에 개발을 완료한 탈모방지 및 양모제(가칭 황금뿌리 샴푸)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유효성 강화제품의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졌다.

Naturetech obtained the approval for manufacturing of quasi-drug from KFDA on July 29. As this approval should pass KFDA's manufacturing standards and facility due diligence, Naturetech's obtaining of this approval implies that Naturetech's manufacturing standards and facilities are suitable for manufacturing quasi-drug. Naturetech, through approval for manufacturing of quasi-drug, is able to develop and manufacture various types of products with strengthened efficacy, with hair loss prevention shampoo (Tentatively named as *Scuterallia baicalensis* shampoo) developed in 2010 as the beginning.

네이처텍, 국가 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Naturetech, Awarding Encouragement Award at National Productivity Champion Contest

네이처텍은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 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국가 생산성 대상은 1975년 1회를 시작으로 2011년 35회까지 진행되어온 명실공히 대한민국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을 확인하는 정부 포상제도이다. 국가 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는 국가 생산성





대상과 같이 시상하는 포상제도로 최근 3년간 생산성향상 추진내용 및 활동성도가 우수한 기업의 혁신활동 추진팀을 대상으로 한다. 총 18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경진대회에 1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네이처텍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네이처텍 혁신활동에 대한 성과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12개 업체 중 7위의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On September 6, Naturetech was awarded encouragement award from National Productivity Champion Contest hosted by Knowledge Economy Ministry and supervis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This Contest is the government's awarding program, which has been continued from its 1st contest in 1975 to 35th contest in 2011, to find out and reward companies with excellent productivity. The targets of this contest are innovation promotion teams of the companies showing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outstanding performance during recent 3 years. A total of 180 companies participated, and 12 companies were selected in the 2nd round after the document screening. Naturetech gave a presentation titled, 'Naturetech's performance of innovative activities and win-win strategy with outsourcing companies,' and ranked 7th out of 12 companies.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GMP 인증 후 첫 번째 자체점검 The First GMP Self Inspection

지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유니젠은 GMP 인증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2010년 8월 12일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체점검에서는 GMP 실시 상황평가를 토대로 200개의 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합격점인 17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얻었으며, 현황 파악 및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Unigen conducted self inspection after GMP certification during the period between September 5 and September 6. It is the first self inspection since Unigen acquired certification from KFDA as a company with GMP for health functional food on August 12, 2010. It is required by regulations of the GMP for health functional food which should be conducted every year on a regular basis. During this self inspection, 200 items were scored based on GMP checklist. As a result, Unigen obtained 170 points, which are above a passing mark, and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heck current statu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상장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 컨설팅 IFRS Consulting toward a Listed Company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제적 수준의 회계정책 수립 및 실무진 역량 확충을 위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을 위해 한영 회계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9월 7일 유니젠 3층 회의실에서 한영 회계법인과 관련 임직원이 개시 회의를 가졌다. IFRS는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다. 이 컨설팅은 향후 유니젠의 전략적 목표인 IPO를 위해 K-IFRS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Unigen concluded a consulting contract with Hanyeong Accounting Firm from September 5 to October 7 to introduce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order to establish global standard accounting policies and boost capabilities of working-level employees. On September 7, we had a kick-

off meeting with Hanyeong Accounting Firm. IFRS i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hich are announced b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a bid to improve accounting process and un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consulting was purposed to adopt K-IFRS for IPO, a strategic goal of Unigen.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힐탑가든, 유기농 인증과 글로벌 갭 인증 추진 Organic and Global Gap Certification for HTG

힐탑가든은 2009년 2월부터 농장과 정원의 유기농 인증(Organic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인증 획득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3년 동안 힐탑가든은 유기농과 글로벌 갭(Global Gap) 기준에 따라 517에이커 전체 부지를 운영했다. 작물이나 밭, 정원, 어떤 곳에도 화학 제초제나 살충제, 혹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기농은 단순히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기르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경작지와 토양의 생명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힐탑가든은 식품 안전 절차(Food Safety Procedures)에 따라 퇴비차와 가수분해된 생선과 같은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여 운장을 실행하고 있다.

6월 29일과 30일에 유기농 인증과 글로벌 갭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외부 예비 실사가 있었다. 몇 가지 고쳐야 할 사소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곧 수정하여 인증서 취득을 위한 현장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힐탑가든은 자체적으로 SOP (표준 운영절차)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별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도 작성하고 있다. 힐탑가든은 2011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In February 2009, the team at Hilltop Gardens began its quest for the Organic Certification of our Farm and Gardens. Now, almost 3 years later, we are rapidly approaching the end of that three year pursuit. Over the past 3 years, we have been operating the entire property, 517 acres, at Hilltop Gardens under Organic and Global Gap practices. There have been no chemical herbicides, pesticides or, fertilizers applied to any of our crops, fields, or gardens. Operating organically is much more than just growing a crop or garden without applying any chemicals, it is a process of re-building the vitality of our soils and fields. We have been doing this through crop rotation, compost tea application, use of organic fertilizers, such as hydrolyzed fish, and Food Safety Procedures.

Our crop rotation plan allows us to plant cover crops in the off-season that are high in nitrogen, which are used as a green manure. These crops will be cultivated and incorporated into the soil to re-build the organic matter of the soil. As the organic matter decomposes, it releases nitrogen into the soil that the crops need to grow.

We have recently installed a Compost Tea Extractor and are currently making our own Compost Tea. We can make a 1400 gallon batch of Basic Compost Tea in just over 2 hrs and apply it to our fields at a rate of 25 gallons per acre. Compost Tea builds-up the microbial activity in the soils, which aids in the decomposition of the organic matter and the efficiency of our organic Fertilizers that we are spraying our planted fields every 2 weeks.

On June 29th and 30th, we had our pre-audit for Organic and Global GAP Certification. The audit went really well. Although we had a few minor non-conformities, we have corrected them immediately and submitted our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nd waiting for audit schedule. We have been diligently working on developing our SOP's and implementing the different logs to track our daily activities. We are on track and plan to be Global Gap and Organic Certified before the end of 2011.



'ECONET 2011' 공채 및 입문 교육



2011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에코넷 한국은 에코넷 이름을 널리 알리고 각 사에 활력소가 될 인재를 충원하고자 'ECONET 2011' 신입 공채 모집을 진행하였다. 7월 중순부터 신문과 인터넷에 홍보하고 한편으로 모교방문단을 꾸려 에코넷을 알리면서 이력서를 접수했다. 그래서 8월에 서류 전형,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면접, 영어 인터뷰, 인성·적성 검사, 마지막으로 사장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20여명의 최종 합격자들은 9월 5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에코넷의 이해, 기업경영의 이해, 업무수행역량 향상, 대인관계 및 자기 관리, 사회 봉사의 내용으로 구성된 입문 교육을 받았다. 10월 각 사에서 OJT를 거친 후 현업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공채는 남양알로에가 시행한 공채 이후 처음 시행하는 공채이다. 그 동안 각 사는 사별로 신입과 경력사원을 수시로 채용했었다. 에코넷은 이번 공채가 에코넷의 정신을 발전시켜나갈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① 입문교육 중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 [People take a daily test](#)
- ② 이병훈 총괄 사장의 특강 [Bill Lee's lecture](#)
- ③ 면접 중인 사람들 [Interview with applicants](#)
- ④ 입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People are taking classes](#)
- ⑤ 네이처텍 현장 실습 [Field practice at Naturetech](#)



'ECONET 2011' Open Recruitment and Training

ECONET Korea, in an effort to publicize ECONET across the nation and hire human resources that will vitalize each company for new take-off in 2011, operated 'ECONET 2011' open recruitment. From mid-July, advertisement has been posted on newspapers and internet, and Alma Mater Visitors were sent to their alma mater for publicity. In August, successful candidates were selected after document screening, presentation, interview in English, aptitude/personality test, and interview with CEOs.

The 20 successful candidates received one-month training from September 5 about understanding of ECONET, understanding of business management, improvement of working capability, personal relationship, self-development, and social contribution. After OJT in October at each company, they will be placed to divisions or teams.

This is the first open recruitment in some years after the open recruitment was conducted by Namyang Aloe. Until now, each company has respectively selected new employees and employees with career on an irregular basis. ECONET is doing its best so that this open recruitmen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find out new human resources who can further develop ECONET.



⑥ 봉사활동 Social Contribution

⑦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다리를 만든 사람들 Making a bridge as a team building program



에코넷 직급별 행사



1



2

2011년 에코넷 한국은 구성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 직급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7월과 8월, 에코넷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직급별 행사가 진행되었다. 소속사를 구분하지 않고 '어우러짐'으로써 '에코넷 공동의식'을 높여 시간 협력과 조율의 바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목적으로 진행한 직급별 친목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1차 행사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기평에서 있었다. 네이처텍 안기억 본부장의 팔로어십(followership) 강의와 에코넷 경영지원본부장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제안 프로그램으로 27명의 직원들이 수상 레프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에코넷의 사원 26명이 모인 2차 행사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에서 있었다. 유니젠 표창민 상무의 서번트 리더십 강의와 간담회 외에 3개조로 나뉘어 제안 프로그램인 래프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직원들은 에코넷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코넷 인사팀은 2011년 연말까지 대리금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① ② 수상 레프츠를 즐기는 직원들 People enjoy water sport program
- ③ 래프팅을 즐기는 직원들 People enjoy rafting
- ④ 안기억 본부장의 팔로어십 강의 Followership lecture



4



3

ECONET's Events by Positions

In 2011, ECONET Korea provided the members of same position with an opportunity to be closer together for them to communicate well. First of all, there were events for two times in July and August for entire employees of ECONET. In these events, which were purposed to enhance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employees of companies by getting along with employees of same position regardless of companies and improving 'spirit of ECONET,' some participants proposed their own programs. The 1st event participated by 27 employees was held in Gapyeong, Gyeonggido from July 8 to 9. There were the lecture on subject of "Followership" by VP of General Management Division, Naturetech Kieok Ahn, meeting with VPs of General Management Division of ECONET companies and water sport program. In the 2nd event with 26 employees was held at Naerincheon of Inje-gun, Gangwondo from August 26 to 27. Servant leadership lecture was provided VP of Unigen Changmin Pyo, and employees in three groups enjoyed rafting. Participants showed their feeling that this event served as a good opportunity to enhance unity and establish closer relationship. HR Team of ECONET is planning to hold another event for assistant managers by the end of 2011.

- ⑤ 팀 대항 게임 중인 사원들 Team competitions
- ⑥ 표창민 상무의 서번트 리더십 강의 Servant leadership lecture
- ⑦ 1차 행사 단체사진 Group Photo of 1st event



알로콥 멕시코, 독립기념일 파티

Aloecorp de México celebró el Día de la Independencia de México



지난 9월 15일, 알로콥 멕시코는 전체 직원들이 함께 하는 점심 파티를 열어 멕시코 독립기념을 축하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열어 멕시코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직원들 상호간의 인화를 다진다. 몇몇 직원은 회사가 미리 준비한 전통복장을 입었다. 특히 여직원들 일부는 전통 블라우스와 술을 걸치고 뺨에 멕시코 국기 문양을 그려 넣으며 파티를 즐겼다.

직원들은 치킨 몰레, 라하스, 보콜리토스, 녹색 계란(녹색 야채를 넣은 계란 요리), 피카디요 등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멕시코 전통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오르차타, 하마야가, 레몬 주스 등도 함께 들었다. 그리고 식후에는 미리 만든 멕시코 국기 문양의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멕시코 인들에게 독립 투쟁의 시작을 기념하며 함께 식사하는 전통은 100년이 훨씬 넘었다. 매년 독립기념일(9월 16일) 전 야인 9월 15일 저녁에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들은 전통 음식과 음료 등을 함께 하면서 이 날을 기념한다. 특히 많은 멕시코 사람들은 “비바 이달고, 비바 모렐로스 … 비바 멕시코” 등을 외치며 200년 전의 독립 투쟁의 시작일을 기념한다.

En Aloecorp de México, este 15 de Septiembre del 2011, celebramos una vez más, el día de la Independencia Mexicana en nuestras instalaciones con una comida para todo nuestro personal, incluyendo a todos los empleados de la empresa, este tipo de convivencia nos acentúa el amor por México y realza nuestro patriotismo, mejorando la comunicación interna del personal, mencionar que el personal masculino y femenino portaron camisetas típicas de manta, tradicionales de la cultura mexicana.

Algunos de los platillos que degustaron los comensales fueron pollo en mole, rajas con queso, huevo verde, bocolitos, picadillo, todos estos platillos típicos de la gastronomía mexicana, con aguas frescas de diferentes sabores como horchata, Jamaica y limón.

También disfrutamos de un rico pastel, adornado con los colores típicos de nuestra bandera y con figuras representativas del entorno mexicano. Al reunirnos como una gran familia en este evento nos llenamos de alegría al saber que nuestras tradiciones siguen firmes a lo largo de más de 100 años de tradición, uniéndonos así a los festejos que en todo México se llevan a cabo año con año.

En la actualidad en la noche del 15 de Septiembre todos los mexicanos se unen para disfrutar de nuestras tradiciones, como es la comida típica, bebidas, simular el grito de independencia, mencionando las siguientes palabras, “Viva Hidalgo, Viva Morelos, Vivan los héroes de la Independencia, Viva México”, celebrando así el 16 de Setiembre de 1810 inicio de la lucha por la independencia de Mexico encabezado por el Cura Miguel Hidalgo.

Aloecorp Mexico celebrated the Mexican Independence Day



September 15, 2011, Aloecorp Mexico celebrated the Mexican Independence Day in our facilities with a meal for all our staffs. This type of party enhances our love for Mexico and patriotism as well as improving internal communications between staffs. Some people wore Mexican traditional shirts and typical white blouses with shawls.

We enjoyed various Mexican foods, such as Tinga (chicken in Mole), Rajas with cheese, Bocolitos, Huevo verde (egg with chili), Picadillo, lump of beef, etc., with fresh water in different flavors like horchata, Jamaica and lemon. As we gathered all employees as a family in this event, we were filled with joy to know that our traditions strongly remained in our tradition for more than 200 years. Therefore, we will continue this kind of celebration in the company every year, as Mexico carries out this countrywide celebration each year.

Today, on the night of September 15, all Mexicans come together to enjoy our traditions with typical foods, drinks. They simulate the cry for independence, citing the words, "Viva Hidalgo, Viva Morelos, Vivan los heroes de la Independencia, Viva Mexico", celebrating the September 16, 1810 beginning of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Mexico led by Father Miguel Hidalgo.

- ① Overview of Food, Farm Personnel Vista General de la comida, Personal de campo
- ② Farm Personnel Personal de campo
- ③ Dividing the Pie. Repartiendo el pastel
- ④ The pans with different stews Las Cazuelas con los diferentes guisos

에코넷웨이 퀴즈 ECONETWAY Quiz

에코네시안들에게 생각과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과 가치를 제공하여 줄 목적으로 건립한 ○○○○○○는 유니젠 러시아 농장, 호수와 바다의 풍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살로나 호수 부근의 풍광이 빼어난 언덕에 자리잡아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여기서 ○○○○○○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각사의 에코넷웨이 기자단 또는 에코넷웨이 편집실 (minsun@namyangglobal.com)로 정답을 보내 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선물로 베리스파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The ○○○○○○○○○○○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to expand the depth and width of wisdom and thoughts of ECONETians and provide time and value to communicate with nature. It boasts of beautiful scenery situated on a hill around the Solyonoe lake in Russian farms of Unigen Russia with a view to the lake and ocean. What should be in ○○○○○○○○○○○ ?

Please send the answer to the editing room of ECONET Way (E mail minsun@namyang-global.com) or to ECONET Way reporters in each company. We will cast lots to see who can be given Vera Spa Hand Cream as a gift among those who answer correctly.

Last Issue's Winners

Q : 힐탑가든 브랜드는 성장과 방어 에너지를 담은 ○○○○○○, 구기자, 비트, 콜리플라워, 딜, 서양호박 등에서 추출한 성분(Botanical Juice, 5-colors Botanical Extracts)을 사용하여 식물이 간직한 근원의 힘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A : 베이비알로에

김효재 과장 | 유니베라 한국
김남규 차장 | 에코넷
나렐리 엔리케 | 알로콰 멕시코

Q: The Hilltop Gardens brand uses ○○○○ ○○○○ with such defensive and growth energy but also five-colors botanical extracts of wolfberry, beet, cauliflower, dill and pumpkin to convey the original power inherent in plants. A : BABY ALOE

Hyojai Kim | Univera Korea
Namkyu Kim | ECONET
Nallely Xitlaly Enriquez Zecaída | Aloecorp Mexico

● 에코넷웨이 36호를 보고

『에코넷웨이』는 에코넷의 역사적 순간을 충실히 담아내는 역사적 기록이자 에코네시안의 소통의 채널로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길이 되고자 합니다. 『에코넷웨이』를 보고 느낌 소감이나 비평, 혹은 에코넷과 『에코넷웨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마련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Readers' opinions about the vol. 36 of ECONETWAY

ECONETWAY is a record of historical moment of ECONET, and also a communication channel of ECONETians. We want to make the way for upholding the value of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For those who send their thoughts after reading ECONETWAY, and those who advise on the rightful course of ECONETWAY, we always welcome the opinion of readers, and will send small gifts for them.

Please send your opinion to the reporters of ECONETWAY or to ECONETWAY Editorial Office.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 정정 알림 Notice: Correction

에코넷웨이 35호에서 아래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합니다.
In the vol. 35 of ECONETWAY, errors were found in these articles. The revised words are as follows.

Page 21
산체스는 마우엘(Mauel) 출신으로 바지런한 일꾼이다. → 마누엘(Manuel) 출신으로
The supervisor in Lake Farms is Martín Sánchez. He is a diligent man from Mauel. → from Manuel

Page 38 (Korean only)
날씨가 너무 나빠 뉴워크 국제공항의 모든 비행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다. → 뉴욕 국제공항의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모든 어른을 부모같이, 모든 아이를 자식같이
The Elderly as our Parents, All Children as our Own

에코넷 ECONET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65, Fax: +82-2-467-9988
www.econetglobal.com

에코넷 USA ECONET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300, Fax: +1-360-413-9185
www.econetglobal.com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100 Lee Lane
Lyford, TX 78569, USA
Tel: +1-956-262-2176, Fax: +1-956-262-2487

네이처텍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50, Korea
Tel: +82-43-532-5144, Fax: +82-43-532-5328
www.naturetech.co.kr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500, Fax: +1-360-413-9150
www.us.univera.com

알로콥 미국 Aloecorp USA (Headquarter)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400, Fax: +1-360-413-9185
www.aloecorp.com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3100, Fax: +82-2-463-9162
www.univera.com

유니베라 캐나다 Univera Canada

290 Labrosse Ave.
Point-Claire/Montreal
Quebec, Canada H9R 6R6
Tel: +1-514-426-2865, Fax: +1-514-693-3425
www.univeracanada.com

알로콥 멕시코 (생산) Aloecorp Mexico (Farm & Operations)

Aloecorp de Mexico
Carretera Tampico-Mante km 89
Gonzalez, Tamaulipas, Mexico 89700
Tel: +52-836-273-2146, Fax: +52-836-273-2146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82-41-529-1510, Fax: +82-41-529-1599
www.unigen.net

유니젠 미국 Unigen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200, Fax: +1-360-413-9135
www.unigen.net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nyang China

만녕사무실 / Wanning Office / 万宁办公室
海南省萬寧市禮紀鎮茄新村 南洋蘆薈基地 郵編 : 571529
Hainan Aloecorp, Jiaxin Village,
Liji Town, Wanning, Hainan, China, 571529
Tel: +86-898-6258-5078 FAX: +86-898-6258-5018
http://www.aloecorp.com.cn

유니젠 러시아 Unigen-Russia Co., Ltd.

Office 707, Prospect Kranogo Znameni 59,
Vladivostok, Primorsky territory, Russia.
Tel: +7-4232-30-2886, Fax: +7-4232-43-17-78

ECONET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